NOV 1 6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67 1981년11월11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November 11,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퀘벡주, 헌법개정안에 강력반발

더이상의 협상 거부선언

◇ 주의회 개원식에서 연설중인 르베끄수상.

캐나다제정 헌법을 갖기로 결의한 헌법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한 퀘벡주의 르네·르베끄수상은 9일 주의회개원식에서 연방정부와 경제문제를 제외한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보이콧한다고 못박았다.

르베끄수상은 헌법개정안은 "이틀간의 협박, 공갈을 거쳐 하룻밤새에 만들어진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것"이라면서 퀘벡주는 이번헌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캠페인을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퀘벡주는 경제문제등 긴요안건이외의 연방, 주정부간 회의에 참석을거부할 것이며, 영국의회에서 이번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준비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협상중 크게 권익을 뺏긴 것으로 보이는 원주민들도 대표를 런던에 파급, 로비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었다.

헌법개정안에 관한 주민총투표설에 관해 르베끄수상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9일자 토론토·스타지는 퀘벡주의 일부 강경과 자료들이 퀘벡분리문제를 즉시 총선거에 부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다시 분리문제를 재기한 이들 자료중에는 60년대초 퀘벡분리운동에 적극 활동한 베다르 법무장관이 자끄·레오나르 시정담당장관등이 포함됐다.

새 헌법안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은 자녀를 영어나 불어중 하나를 선택,교육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으나, 퀘벡주는 퀘벡주에 한해 주민이 모두 불어로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클로드·리앙 퀘벡 자유당 당수는 퀘벡주내 소수그룹인 영어사용 주민들이 영어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고 주장, 레베끄수상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한편 헌법개정문제 협상중 시종 트루도수상에게가장 동조적이었던 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은 9일 "더이상 퀘벡에 양보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2천년전 사적

돌무덤. 유물들 발굴

(춘천7일=연합)2천여년전의 사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돌무덤과 여러 유물들이 춘천에서 발굴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직경 12m의 무덤은 2천년전 그 지방에 살던 종족의 지도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탐사반의 일원인 한 고고학자에 의하면 발견된 무덤은 큰 자갈들로 구성되었고, 선사시대 유럽지방 무덤에서 자주발견되는 통로가 있다.

이번 문제의 고분은 강원대학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밖에 유물로는 토기조각들, 쇠못, 쇠칼, 청동걸이(링)이 있어 그당시 이미 청동기및 철기문화가 출현했음을 암시해 준다.

발견된 고분 가까이에서 발견된 쌀알과 쌀잎의 흔적이 새겨진 토기들은 탐사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B C5~10세기전 그 지방의 쌀 수확의 증거를 보여줘, 이미 청동기시대에 한반도에서는 쌀을 경작했음을 시사한다. 그들은 이와같은 토기는 부산, 여주, 부여및 전라북도 일원에서도 발견됐었다고 덧붙였다.

X-마스 기념우표

16일부터 3종류

(오타와)안드레·위렌 우정공사 담당장관은 오는16일 올해의 크리스마스 우표3종류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새로 발행되는 우표의 도안은 2백년전 퀘벡주의 독일계 가족이 처음점화한 크리스마스 트리를세운것을 기념한 것이다.

1781년 퀘벡주 소렐에 의 프레데릭·본·리디셀 소령부처가 처음 점화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방안에세우자 이웃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점차로 퀘벡주내의 불계인들간에 유행했으며, 나아가 전캐나다에보급되었다.

렌트규제 철폐주장

집주인들, 투자효용적다

온타리고주 렌드로드(임대주)들은 렌트인상을 연 6%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정부의 렌트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각지의 임대주들은 7일 회합을 갖고 5인집행위원회를 선출, 협회를 구성, 주정부 상대로비활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임대주들은 렌트 규제가 계속되는한 투자에 대한"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우려,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응, 온타리오주의 티넌트(세든 사람) 대표그룹들도 같은날 모임을 갖고, 빈 아파트가 점점 희귀해져 가는 추세를 이용, 렌트료를 올리려는 "인상압력"을 저지키 위해 렌트규제책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이를 고수키 위해 모두 티넌트들은 렌트청문회등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 렌트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들이 렌트·콘트롤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 호화판 아파트로 개조하는 경향이 많아 저소득 내지 중간소득층을 위한 아파트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은행 한국진출에 관심커

융자조건 호전으로 합작은행설립신청 쇄도

한국에 대한 외국 은행가들의 신뢰감이 증가되고 있다고 월 스트릿 저널이 4일 보도했다.

그러한 증표로 한국 개발은행은 지난 8년동안 최대 규모인 5억달러를 영국에서 빌리기로 됐는데 박 대통령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수주내에 융자계약을 할 것이라고 이 기사는 전했다.

또한가지는 외국 은행들이 한국에 지점 개설을 기다리고 있는 숫자가 늘어 현재 37개 외국은행 지점과 19개 사무소를 설치한데 이어 9개 은행의 추가 신청을 한국 정부가 허가할지 의문이라고 이 기사는 전했다.

몇개의 외국 은행은 한국 재벌들과 합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13개 한국 기업들을 참여시킬 합자은행계획은 82년중 완료될 것이라고 이 기사는 전했다.

한국주택난 심각

가구수 증가일로

(서울6일=연합)단독주택의 계속적 증가에도 불구 한국의 주택사정은 늘어나는 핵가족화에 비교, 그 절대수가 부족하다.

6일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80년도 가족및 주택센서스에 의하면 전국 가구수는 80년11월현재 800만을 육박했으며 75년도와 비교하여 19.9% 증가했다. 이에반해 주택수는 75년 480만에서 80년 550만으로 13.4%의 증가율밖에 보이지 못했다.

같은 기간동안 호구당평균가족수는 5에서 4.6으로 떨어져 핵가족의 증가를시사하고 있다.

트루도수상 방한수행 100시간 ④

한·가 정상회담 돌입

기자를 제지하는 기자완장의 요원

이태은 특파원

9월28일 상오10시 중앙청에서 벌어진 수상환영식에 참석, 사진을 촬영했다.

환영식후 트루도 수상과 남총리의 회담이 진행 되는 동안 기자 일행은 청와대로 향했다.

정문서부터 여기저기 무장군인들이 눈에 뜨인다. 경비가 삼엄하여 긴장이 감돈다. 차는 서행으로 달리는데, 앞에서 갑자기 한 경비원이 우리차를 정차시키고 성난 얼굴로 "당신들 여기서 촬영했지"한다. 한국말로 하니 모두들 눈만 휘둥해진다. 나는 "TV 카메라멘이 카메라 조작준비를 하는 거다"고 설명했다. 절대로 이곳을 촬영해선 안된다고 명령조로 말한다.

옆의 CTV기자가 그 사람 화난 것 아니냐고 물어서 아마 피로한 것같다고 대답해 주었다.

제2초소에서 일행은 검색을 당했다. 사진기의 샤터를 눌러보라고도 하며, 녹음기도 틀어보라고도 했다.

청와대 본관으로 달리는 차창 주위는 잘 가꾸어진 정원의 꽃과 나무들의 푸르름이 수놓은 것처럼 곱게 보였다. 여기저기 군경비병들의 군화발자국 소리가 정적을 깨트린다.

전원이 대기실로 들어갔다. 실내는 프랜취 스타일의 의자와 테이블로 꾸며졌고 벽에는 전대통령이 아주 순방때, 수뇌들과 같이 찍은 천연색사진이 여러폭 걸려있다.

실내의 무거운 공기와 긴장탓인지 모두들 땀을 흘린다. 한 10분 가량 지났을까, 한 TV사진기자가 늦게 들어왔다. 중앙청 출발때 차를 놓쳤다면서 수상보좌관에게 삼엄한 경비 때문에 더 늦어졌다고 변명한다. 보좌관은 이해 한다면서 트루도 에짚트방문때도 여곳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1시가 조금 지나서 "캐나다 수상 정문통과"라는 소리가 나자, 모두들 자리를 박차고 우르르 현관으로 몰려갔다.

기자들이 두줄로 서서 어깨로 밀치고 사진촬영 포즈를 잡으려고 야단들이다. 어떤 한국기자 명찰을 단 깡마르게 생긴 이가 자기발 앞으로 나가지도 말고 또 붉은 카펫이 깔린 끝부분의 선을 절대로 넘지 말라고 엄하게 훈시한다. 혹시 "어디 신문사에서 오셨는데 저를 부하처럼 지휘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런 것 알 필요없어"하고반말로 대답한다. 경호원 인것같다 생각하고 일부러 살짝 그의 발을 밟아 주었다.

수상이 도착하자 곧바로 접견실로 안내되었고, 전대통령의 짤막한 환영사에 이어 통역관의 통역이 있었다. 기자들은 녹음기를 틀어놓고 전대통령의 환영사 기사를 쓰고, 서로 비교 검토해 본다.

캐나다 수상과 대통령의 단독회담이 시작됐다.

어떤 내용들이 실지로 오고 갔는지 공식보도된 이외에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공동성명도 없었다. 오타와 출발 전에는 공동성명이 있을거라고 예견 됐었다.

총리회담이나 청와대 정상회담에서도 캐나다 교포 전체 관심사의 하나인 「이민문제」가 회담내용에 들어 있었는지 조차도 알길이 전혀 없었다.

나는 오타와를 출발하기 전 분명히 두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갔다. 그하나는 출발전 본보 김명규 사장이 부탁한 여러가지 사항중 최대 관심사인 이민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국기인 태권도를 트루도에게 직접알리려는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트루도수상(우)을 안내, 정상회담실로 들어가는 전대통령(좌)

이민문제에 대해서는 주한 캐나다 바우어 대사에게도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해보았으나,구체적인 언급을 회피,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나는 저녁 수상의 공식기자회견서 꼭 질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속)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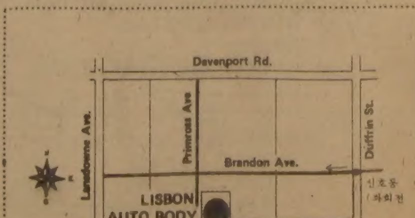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개업특별봉사

* A. CLASS LICENCE BODY MAN
* A. CLASS LICENCE PAINTER
* GUARANTEE WORKMAN SHIP
* 사고후 보험처리
* OVEN BAKED FINISH
* COMPLETE BODY WORK
* TOWING써비스
* 수리중 차대여

●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 능숙한 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LTD.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청진사태 소련사주에 의한것

북한의 친중공및 서방정책 견제목적

(도쿄7일=연합) 일본의 한 믿을만한 소식통은 7일 지난9월 청진에서 있었던 북한정규군과 적위대 사이의 무장충돌은 북한의 중공접근을 견제하기 위한소련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청진사태가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며, 수백명의 적위대원들이 중공령 한국인 자치구 길림성으로 도주, 중공당국은 사태의 악화를 우려, 9월23일 국경을 봉쇄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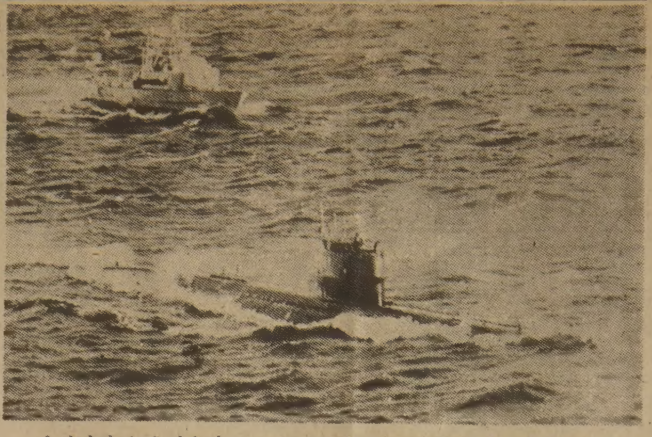
소련이 이번 청진무장충돌에 편승, 북한의 중공, 일본, 미국및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접근 견제및 북한내의 소련영향력증대를 위해 이번사건을 교사했다고 동 소식통이 밝혔다.

동소식통은 또 만주에있는 한국인 자치구에서 일어난 2만명 한인들의 폭동의 배후에도 소련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했다.

군사 경제적으로 소련에 의존하고있는 북한은 최근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소련에 근접한 동해안 경제, 산업중심지를 서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동소식통이 전했다.

동 소식통에 의하면 소련과의 계속 증가하는 무역의 적자로 78년 소련에게 나진항 사용권을 줌으로써 실제로 청진 이북을 소련에게 조차한 셈이 되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바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정식 교수는 북한당국은모종의 이유때문에 소련에게 그 지역을 빌려주었으며, 조차기간은 10년이라고 말했다.



◇석방된 소련 잠수함—스웨덴 영해안에서 좌초되어 10일간 억류되어 있던 소련 잠수함이 6일 석방되어 공해상으로 항진하고 있다. 뒤에는 스웨덴 선박이 따르고 있다.

대사배 볼링대회

한맘B팀 우승

제4회 대사배쟁탈 한인볼링대회가 7일 한인회 주최로 100여명의 교민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개최됐다.

플레이타임 볼링장(33 Samor)에서 1시부터 시작된 볼링대회는 6시경 시상을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개인전, 부부전, 단체전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대회는 개인전에 43명 부부전에 9쌍, 단체전 7팀이 참가 열전을 벌였다.

천주교회의 한맘B팀 은 총1532점을 얻어 우승, 작년에이어 올해도 영예의대사배를 차지했다.

이날 전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전
남자부 : 1등 김종석(565)
2등 이종현(555)
3등 최종대(554)
여자부 : 1등 이인숙(462)
2등 김영자(455)
3등 장한샘(430)

◇부부전
1등 김동훈부부(472)
2등 장인택부부(434)
3등 김진환부부(421)

◇단체전
우승 : 한맘B팀(1532)
(김동천, 조규열, 이상열)
준우승 : 진설악팀(1508)
(최종대, 김종석, 문덕래)
3등 : 한맘A팀(1370)
(이종현, 이창열, 김동훈)

◇하이싱글
남자부 : 이종현(222)
여자부 : 이인숙(175)

◇터키상
신영식

※개인전 점수는 3차전적 합계, 부부전 점수는 부부 에버러지(Average)의 3차전적합계, 단체전 점수는 3명의 3차전적 합계.

합동연말파티 개최

연·고대동문, 연고전 대신

연세대학및 고려대학교 동문회는 최근 수년간 계속해온 연고전 대신 매해 합동연말파티를 개최키로 결정 오는 12월5일(토)저녁7시 뉴서울식당(오리엔탈파레스2층)에서 첫 합동연말파티를 고대동문회 주최로 갖는다.

두 동문회는 모교의 전통을따라 매년 개최해온연고전의 내용이 축구시합·줄다리기등 연로한 동문들의 체력에 비해 다소 과하고 경기의 승패에 지나치게 집착되는 경향이 있을점등을 고려, 합동파티로바꾼 것이다.

이날 파티에는 아카데미TV동부지점(대표 김정운 고대동문)제공, 칼라TV 1대, 고려보석(김무호 연대동문)제공 보석등을 비롯, 다수의 경품이 있다.

주최측은 이날 파티에참석하는 모든 교우에게 독수리와 호랑이 디자인이그려진 열쇠고리를 증정한다.

연락처는 고려대 동문회 총무 조병역(444-9755).

메이플립스, LA킹 대파

디비전 최하위는 여전

(잉크우드=캘리포니아주)연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NHL 토론토·메이플립스는 마샬·리온, 찰리·스미스등 화려한 공격진을 갖춘 LA킹스를 9:4로 대파, 오랫만에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신인(루키)골리·트렘발리가 메이플립스의 골문을 단단히 지키는 가운데 빌·델라고가 이끄는 립스의 공격진을 초반부터기선을 제압, 제1피리어드 를 4:1로 리드했다.

제2피리어드에서 킹스는 마샬·디온이 넣은 2골등을 합쳐 4:4까지 따라잡았으나 립스또한 2골을 추가, 6:4로 2피리어드는 리드했다.

계속된 제3피리어드에서 립스는 3골을 추가, 9:4로 대승했다.

선방하던 메이플 립스의 골리·트렘발리는 제3 피리어드에서 골 포스트와 충돌 목뼈부상으로 퇴장했으나, 중상은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립스는 4승8패 3무를 기록했으나 아직도 노리스 디비존 최하위를 면하지는 못했다.

립스는 11일(수) 과 13일(토) 메이플립 가든에서 아일랜드, 필라델피아와 홈게임 2연전을 갖는다.

김치등 고유식품 수출신장

연평균 $7백만 해외교민 증가로

(서울 7일=연합)해외거주 한국인수의 증가로 된장, 간장, 고추장및 김치같은 한국의 고유식품의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일 식품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해외교포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식품회사들의 연평균수출량은 7백만달러에 상당한다. 수출상대국은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독일, 일본, 등 23개국에 달한다. 이중 최대 수출상대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57% 를 차지하고있다.

80년도 품목별 수출량은 간장, 김치95만 8천 달러 김치 29 8만 달러, 간장95만8천달러, 된장 84만 달러 등이다.

다고 말했다.

PEI 새 수상에

제임스·리

(샬롯타운)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집권당인 보수당은 7일 새 당수로 주 보건장관인 제임스·리(44살)씨를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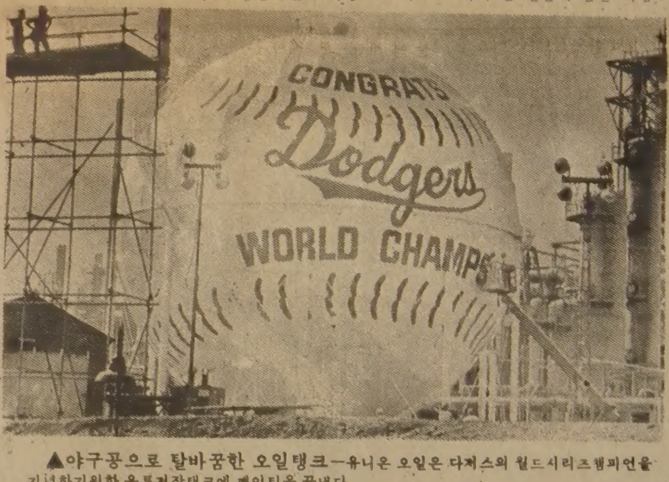
제임스·리 당수는 은퇴하는 앵구스·맥린 현수상의 뒤를 이어 수일내 수상에 취임한다.

우유는 노인에도

칼슘많아 뼈에좋아

(몬트리얼) 우유는 어린아기나 청소년 뿐 아니라 노년층의 영양관리에도 뛰어난 필수적인 식품이라고 의사이며 영양학자인 머쉘·패틴박사가 주장했다.

캐나다전국낙농위원회의 회의에서 패틴박사는 65세 이상의 노년층대부분이 단백질, 칼슘, 철분, 나이아신, 리보플라빈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우유는 칼슘이 주요성분인 식품으로 노인들의 골격발달을 돕고 기형을 예방다는 역할을 한



▲야구공으로 탈바꿈한 오일탱크—유니온 오일은 다저스의 월드시리즈챔피언을 기념하기위한 유류저장탱크에 페인팅을 끝냈다.

제5계절

여름학교를 끝내고

(씨알한국인학교 부교장)

◇김 숙 희씨.

이번주 필자 김숙희씨는 경남 울산시 출신으로 부산사범졸업, 한국서 7년간 국민학교교사, 시카고 한인Y한글학교 1년간, 씨알한국인학교서 7년째 근무해 왔다.
저서 : 〈한글〉①, 〈한글익히기〉, 〈한글통신교재〉

개인사정으로 그동안 한번도 여름학교에 나가서 일할 수 없었다가 금년 처음으로 일을 했다. 한국을떠난 후 처음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던 첫주는 이곳이 한국인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었다. 매주 토요일 한번씩 아이들을 만날 때와는 아주 달랐다. 아침 9시부터 오후3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종일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 셈이다.

"참 잘 되었다. 이런 기회에 아주 정신 차려서 한글문자 해득을 전원 시켜버리자." 하고 생각한 나는 희망에 차고 마음이 뿌듯해왔다.

그러나 웬일일까? 날이 가면 갈수록 처음 먹은 마음은 흔들리고, 자꾸 맥이 빠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뻐 보이고, 사랑을 주고 싶던 아이들이 점점 싫어졌다. 저 아이들의 몸 속에서도 동방예의 지국이란 배달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인가? 이곳의 예법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국의 예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의 생활태도에서 나는 비관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이곳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걸까?" "누구의 잘못일까?" 수많은 의문들이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주었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가 보면 이건 정말 수라장이다. 내 정신으로는 그곳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없었다. 입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아무리 잘 씹는다 해도 목구멍을 통해서 내려갈 것같지가 않았다.

그것 뿐이랴. 마시다 그냥 내동댕이 치고간 음료수캔 속에는 절반 이상이나 남은채 있고, 정성껏 싸준 샌드위치도 그냥 한번 "꾹" 베어먹은 자국을 남긴채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다.

전직원이 동원하여 아이들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했다. 점심 먹고 나가기 전다 먹은 런치통과 음료수통을 검사받은 후 운동장에 나가게 했다. "맨주먹으로 이 땅에 와서 오늘을 만들기에 피땀 흘리신 부모님들! 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하고 싶다. 물건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전연 없는 아이들 같이만 보인다. 우리 교민들의 생활이 과연 이렇게 흥청거리도록 잘 살고 있단 말인가? 이 아이들을 어찌하시려고….

어느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공부가 시작되었는 데도 민이와 엽이가 보이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민이가 들어왔다. "어디갔다 왔니?" 하고 물어도 대답할 생각도 않는다. 달래고 얼려서 들은 대답인즉, 민이는 엽이와 함께 나가서 도나쓰를 사먹고 핑퐁머신 놀이를 하느라고 돈을 쓰고 놀다가 늦어서 학교에 들어온 것이다. 민이가 자리에 돌아가고 난 뒤, 엽이가 온 얼굴에 물을 뒤집어쓰고, 물방울을 "뚝, 뚝" 떨어뜨리면서 교실에 들어섰다. "엽이, 너 어디 갔다 왔니?" 하고 물으니 별일 없었다는 듯이 어깨를 움츠려뜨리면서 두손을 펴보이곤 제 자리에 들어가 덜컹 소리를 내며 주저 앉았다. 엽이의 꼴을 보고 있던 민이가 "엽아, 너 거짓말하는 건 더 나빠. 내가 선생님께 다 말씀드렸어." 하고 나를 도와주기에 "엽이, 너 이리 좀 나오너라." 하고 엽이를 불러냈다.

어깨는 추춤 올리고, 턱은 앞으로 빼고, 양팔을 흔들며, 끄떡 끄떡 걸어나오는 모습을 정말 가관 이었다.

"이녀석, 네 걸음걸이가 그게 뭐야, 그리고 늦었으면 늦은 이유를 설명해야 옳지 않니?" 하고 호통을 쳤더니 엽이는 저도 나만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 내가 걸음을 어떻게 걷든, 내 자세가 어떻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그리고 내가 겨우 5달러밖에 쓰지 않았는데, 당신은 많은 돈을 썼다고 생각하시오? 이곳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은 내 걸음걸이가 어떻든, 돈을 쓰든 말든 상관치 않는데 당신은 왠 참견이시오?" 엽이는 자못 기세가 당당했다.

그 순간 나의 머리속엔 담임선생님의 보살핌 에서 벗어나 내버려진채 교식 한구석에 앉아있는 엽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 엽이에게 대답을 해주지. 아마 선생님은 엽이 몸속에서 흐르고 있는 한국사람의 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엽이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염려하기 때문에 엽이가 쓰는 돈의 출처도 알고 싶고, 엽이의 그 흔들거리는 몸가짐도 거슬려 보이는 거야. 엽이는 선생님의 그 사랑이 싫으니?"

엽이는 대답이 없고, 교실은 물 끼어얹은 듯 조용해 있었다.

—○—

여름학교가 끝날 때쯤, 그렇게도 한글공부를 어렵게만 생각하던 엽이가 한글을 읽어 내려갔다. 내반에 있던 20여명의 아이들이 엽이와 함께 모두 힘차게 한글을 읽을 때면 여름학교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뿌듯하고 희망찼던 마음이 되살아나서 나는 혼자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참으로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다.

기쁜 소리
— 한번 들리세요
444-4011番 —

보고 싶은 사람

안 상 엽

성경을 읽어 가노라면 "믿는 형제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린다." (딤후 1:4) 라는 말이 있고, 그와 반면에 "형제에게 글을 쓰니 기쁨이 넘친다." (요한이 12)는귀절도 있다. 이 두가지 —눈물과 웃음—은 똑같이 "형제"라는 말에 관계되어 있다.

크리스챤(Christian)이란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가진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다. 서로 "형제"라 부른다. 형제가 원수아니라면, 보고싶은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형제"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과 동생만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사귐이 있는 이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사귐이냐?" 라는 질문일 것이다.

"사귐이란 중간에 무엇을 두어 서로 연결된다는 말인데 그것이 금전, 물질, 계약, 법, 이해관계, 욕심등의 수많은 조건이 될 것이다. 크리스챤의 사귐이란예수가 중심이 되어 서로의 관계를 성립한다. 즉 예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는 크리스챤의 올바른 관계나, 사귐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믿는 자가 말하는 형제, 친구, 혹은 이웃이란 예수·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가 전제 돼야 하며, 각자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질때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귐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이지, "성도의 교제"라는 사귐은 될 수 없다. 이 두가지는 대신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예수·그리쓰도는 영상(ghost)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킨,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된 사랑과 사귐은 머리나 마음속의 개념, 혹은 이론으로 그치는 신화나 철학의 명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몸과 몸인 인간속에 구체화된 것이다. 즉 크리스챤의 평화, 기쁨, 사귐, 사랑, 섬김등은흥분이나, 떠드는 것이나, 춤추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중심의 복잡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수만을 중간에 두는 순수하고 단순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믿음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 몸으로 행함이 없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함같이 은혜를 입은 믿음의 경건성을 주장하면서 형제와의 올바른 사귐이 없이, 오히려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는 가장 깊은 곳에서 올바른 사귐을 위해 통회해야할 사람인 것이다.

믿는 형제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곧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막힌 사람인 것 같이, 형제를 해치고 미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에게 다시 못을 박는 사람인 것이다. 자기를 의인화하면서 교만한 자세로 형제를 대하는 사람은, 자칭 의인을 책망하시고, 동시에 죄인과 자고 먹고 대화하신 예수를 다시 알아 이웃과의 사귐을 정화시켜야 한다.

우리속에서의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밖에서 온 것"(extra nos)임을 알아야한다. 크리스챤의 사귐은 아름다운 수식어로 엮은 이론이나, 이상이나, 마음의 생각(Psychic)이 아니라, 민중 속에서 실현한 예수의 생활이요 몸인 것이다.

바울은 "크리스챤"이라는 이웃을 자기의 종교관, 도덕관, 윤리관, 그리고 법과 철학으로 비판하고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였으나, 예수·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사귐을 깨닫게 될 때 새사람이 되어 형제가 보고 싶어 눈물까지 흘리게 된 것이다.

스스로 교만한 종교인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그리스도안에서 변함없는 사귐을 가져 형제제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자의 길이다.

(선교교회 담임목사)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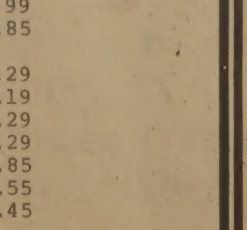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에 한함 —

* Schneider Bacon	500g	2.09
* Schneider cooked ham		1.79
* Mini= sizzler		1.99
* Weiner	1 lb.	1.85
* Gift- chocolated box (Lowney)		
- Pot of gold		4.29
- All nut		5.19
- Marashino cherries		4.29
- Half & Half		4.29
- Ovation- mint stick		1.85
- Selection chocolate		2.55
- Almondillos		2.45

Cash & Carry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달걀, 양파, 감자를 준비했읍니다.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Ont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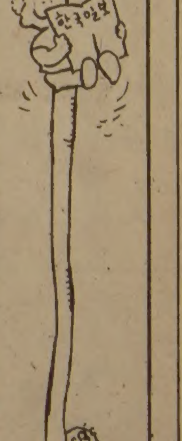
정부의 홍보활동에 인종의다양함을 어떻게 나타낼수 있는가에 관한 특별연구위원회는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구합니다.

연구위원회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온타리오주정부 정책시행에 고려할 것입니다.

서면 건의사항은 82년1월15일 이전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The Task Force on the Portrayal of
Racial Diversity in Government Advertising
and Communications
The Cabinet Office, Room 369
Parliament Buildings
Queen's Park
Toronto, Ontario
M7A 1A1

Douglas Ewart
회 장



광고문의
구독신청
533·2361

〈수 상〉 낙 서(落書)·3

홍 기 만 (문협회원)

반딧불이 있는 고향의 밤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파름한 빛을 발하는 반딧불을 좇다가는 손에 잡힐 듯하면 좇던 몸을 주춤한 채 뒤로 물러서곤 했었다. 반딧불이 발하는 빛깔이 너무나 곱고, 어린 마음에는 신비스럽기만 했었다.

반딧불이 멀리 스러지고 나면 주변은 한결 더 어두운 느낌이었다. 그럴제면 곧잘 풀밭에 드러누웠었고, 그러면 검푸른 밤하늘에 총총히 박혀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은 나의 눈망울에 와락 다가오곤 했었다. 그때의 별들은 엄청나게 커 보였다. 그리고 무척 밝게 빛나고들 있었다.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우러르며 나는 어린 시절의 조그마한 꿈을 엮어가곤 했었다. 그때쯤이면 으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멀리 들려왔었다. 어머니의 음성이었다. 그 소리는 차츰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도시생활에서는 도시 밤하늘의 별들을 의식하지 못한다. 어쩌면 내가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별을 의식한 것은 한국동란 초기, 무섭도록 파괴된 서울거리의 어느 무너진 빌딩의 벽돌더미 위에 주저앉아 질주하는 군용차량의 강렬한 헤드라이트의 광선과 밤하늘의 별을 번갈아 보며 고향을 더듬고 있을 때였는지 모른다. 군용차량의 행렬이 끝나면 주위는 더없이 캄캄했고, 무서운 적막에 휩싸였다. 폐허뿐인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만이 유난히 컸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딧불도 풀밭도,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도 없었다. 다만 하늘의 별과 고향을 그리는 어린 마음이 있을 뿐이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는 고향에 대한 인간의심리작용을 모성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자기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의 본능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누구나 어머니의 따스한 정에 안겨보고 싶은 것 또한 본능인 것처럼 으레 사람은 고향에서 모성을 느끼기 마련인 모양이다. 〈Roots〉의 「쿤타킨테」의 고향을 향한 끈질긴 의지며, 흑인의 향수를 주제로한 「휘스터」의 곡이 만인의 공감을 받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오는 것인지 모른다.

사상 이념전쟁의 피해를 입은 나라일수록 고향을 잃은 사람은 많기 마련이며, 한국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나의 출생지도 38선 경계선의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수성 많은 소년시절을 거기서 지냈다.

이곳 이민생활에서는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곳의 혈육을 찾아보기도 한다. 모두 좋은 일들이다.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네들의 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냉혹하고 각박한 세정에 시달린 나머지 인정마저 메말라 버렸기에 그런 것은 아니다.

달이 없는 고향의 밤하늘에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어느날 밤, 다는 아예 고향을 버리고 말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고향을 버리고 말았다.

그 소년시절 나는 상허의 〈소련기행〉과 앙드레 지드의 〈소련 기행문〉을 함께 읽을 기회를 가졌었다. 상허는 대목 대목 너무나 감각적인 문장을 반짝이며 나의 어린 마음을 소련으로 끌고 갔었지만, 지드와 같은 비판적인 면은 없었다.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에 동정적이었던 지드가 그들의 획일주의에 크게 실망하는 대목이 상허의 감각적인 문장보다 어린 나의 심금을 크게 때려 주는 것이 있었다.

「획일주의」 비판의 내용을 학교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나로 하여금 고향을 버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어느날 저녁 「레닌」모를 눈위까지 눌러 쓴 두명의 장년에게 나의 책장에 간직되었던 서적의 거의 전부를 앗겼고, 나는 쉽게, 정말 쉽게 울면서 그들이 지 켜보는 앞에서 몇권의 나의 귀중한 책을 나의 조고마한 손으로 찢어가며 우리집 부엌 아궁이에 불을 살려야 했다. 정말 나는 슬프게, 그렇게 슬프게 울어본 기억이 없다.

내가 고향을 버렸다는 단순한 사유때문에 그네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치이념이 동일하거나 그 체제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칫가루를 뿌란 듯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무거운 분위기는 질식해 버리지 않으면 그저 미쳐야하는 곳이기에, 혈육이 혈육의 사상성을 고발하는 비정한 곳이기에 버스에도 빈 좌석을 마련하고, 「주석님」을 모셔야 하는 곳이기에, 그러한 체제하에서 성장한 형제자매를 상봉했단들 대화는 이미 두절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의 꿈을 바랄 수 있다면 그처럼 살벌한 분위기속에서도 어머니만은 남의눈을 피해가며 자기 자식을 부여 안은채 기쁨의 눈물을,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릴것이다.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그칠때 그리움으로 간직할 수 있다는 평범한 이야기가 있다.

「프로이드」도 고향을 잃은 사람중의 하나였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자 유태계의 혈통을 지닌 그는 비엔나를 버리고 영국으로 탈출했었고, 다음해그는 오랜 세월동안 투병해 오던 구강암으로 사망한다. 인간은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또는 버리기도 하지만 모성의 정을 그려하듯 어느 한 구석에서는 고향에의 그리움이 항시 숨쉬고 있는 모양이다.

—끝—

〈단 편〉 모 래 성 ⑤

박 성 민 (문협회원)

그들은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제일 높은 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곤 집을 고쳤다. 집을 고치느라고 그집앞 공터에다 모래를 쌓놓았다.

조그만 언덕처럼 쌓였던 모래가 거의 없어져 가는 어느날이었다. 해질녘 같이 놀던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기영이 혼자 남어서 모래위에서 놀고 있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달라.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달라…"

기영은 모래 덮인 손을 두들기며 같은 노래를 자꾸 되풀이했다. 모래로 집을 만들고 있었다. 기영이 자기의 모래 덮인 손을 덮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기영또래의 여자애가 지는 해를 등에 두고 서있었다. 그애는 하얀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런 그애의 모습이 너무나 눈부시게 들어왔다. 그것은 그애가 해를 뒤에 두고 서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애는 동화속에 나오는 먼 나라의 공주보다 더욱 아름다와 보였다. 모래집을 만드는 따위는 그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뜻을 잃어버렸다. 기영은 그애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모래와 떼가 함께 묻은 무르팍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은 그의 발가락이 반쯤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얘, 이집은 벌써 부서졌다."

기영은 몇개인가의 모래집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벌써 부서져 있었다. 기영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설사 그가 무슨 말을 하여도 그애는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기영은 고개를 숙인채 모래 사이에 파묻힌 발가락을 보다가 옆에 놓인 운동화가 보이자 그것을 주워들고 그 자리를 재빨리 도망쳐 나왔다. 골목을 돌아서면서 기영은 잠깐 멈추어서서 뒤를 돌아다보았다. 영문을 모르는 그애는 놀란 눈으로 기영을 마주 보았다. 여전히 해를 등에 둔채….

어느 날의 일이었다. 시골 국민학교 교사로 가있는 이모가 토요일 오후에 모처럼 집에 놀러 왔다. 이모는 선물로 축구공을 하나 사왔다. 너무 기뻤으므로 기영은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흐린 가로등 아래서 그는 혼자 공차기를 하였다. 조금 연습을 해두어야 다음날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그만 공이 깍쟁이네 집 담을 넘어가고 말았다. 기영은 아주 곤란했다. 밤이 너무 늦었으므로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다.

기영은 다음날 아침에 찾기로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에 찾아간 기영은 크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이 넘어갔다는 말에 일하는 아줌마로 보이는 뚱뚱한 여자는 집안에 들어갔다가 공을 찾아가지고 나왔는데, 공은 아주 걸레가 되어 있었다. 그제서야 기영은 친구들이 하던 이야기를 생각해 냈다.

"깍쟁이네 집에선 밤에 잘 때 세파트를 세마리나 풀어놓고 자. 너 그 세파트가 얼마나 큰지 아니?"

그 이야기를 하던 녀석은 세파트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 두팔을 있는대로 벌려 보였다.

기영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말았다. 울던 기영이 이내 울음을 멈추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저쪽 끝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깍쟁이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미처 기영이 눈물을 닦기도 전에 그 뚱뚱한 아줌마는 필요 이상으로 소리를 내며 철문을 닫아버렸다. 기영은 손에 잡힌 찢어진 공과 굳게 닫힌 철문을 번갈아 보았다. 울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발길로 대문을 걷어찼다. 좀전의 뚱보아줌마가 다시 문을 열고 나오더니 기영의 머리를 잡았다.

"무슨 조그만 애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자?"

그녀는 기영을 밀어부쳤다. 기영은 울면서 소리질렀다.

"내 공 물어내란 말이예요."

"니가 잘못해서 그런 걸 누구한테 생떼니, 이 조그만 자식이…"

미처 말도 끝내지 않고 그녀는 기영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기영은 더 소리내어 울었다.

"아줌마! 왜 그래?"

깍쟁이가 어느틈에 문께로 다가와 고개를 내밀었다. 깍쟁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영은 울음을 멈추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그애는 문밖에서 울고 있는 기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얘! 왜 우니?"

그제서야 기영은 울음을 멈추었다. 그리곤 개가 물어뜯어 걸레조가리같은 공을 그녀 앞에 내밀어 보였다.

기영은 소집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여전히 문밖에 서있었다. (계속)

구독신청은 533—236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캄스 미용실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북미의 25時를 지켜보는 한국일보는 휴식이 없읍니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FEDERAL BUDGET COMMENTARY

오는 11월12일 연방정부의 예산안은 모든 카나다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것이다

귀하의 하시는 사업에 어떠한 영향이 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981년도 예산안의 궁금증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고저 합니다.

COPY를 원하시면 11월13일부로 우송을해 드리고저 하오니 아래 주소나 전화로 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 상 수 787—0155

Mintz and Partners
Chartered Accountants
56 Apex Road, Toronto, Ontario M6A 2V2

Affiliated Offices in principal cities throughout Canada.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CHENILLE 재봉사 구함(경험자 시간당 : $6)
COSMO CRESTING's
☎ : 769-4726

스토어 헬퍼 급구
능력있는분 풀타임 우대함
☎ : 924-5155 Mr. 박

주말에 근무할 분으로(토, 일)
그로서리 캐쉬어 구함.
☎ : 531-3491

입주해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 : 533-9061, 241-4384 Mrs. 임

접시닦기 구함
☎ : 960-9035

스포츠 웨어 공장에서 일할 경험있는 재봉사
모집(약간의 영어 요)
☎ : 746-0054 (FINCH & WESTON)

가게헬퍼 파-타임 구함 (오후5~11시까지)
QUEEN ST. E
☎ : 466-3995 Mr. LEE

성실한 분으로 도너스 샵 매내저를 구함.
스카보로 지역
☎ : 282-0634

영어에 능통한자로 1년6개월이상
MEDICAL SECRETARY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연락처 : 493-4468

집봐주실 할머니 원함(침식제공)
할아버지 한분만 지키고 계심.
☎ : 669-5084 Mrs. 최

맥스 밀크에서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성실한 캐쉬어 구함.
☎ : 633-5231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 362-2300

경험있는 여자캐쉬어 구함(풀타임, 파트타임)
261 SCARLETT RD.
☎ : 767-0762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Q ST. W.

"봉재사 급구"
●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경험있는 FULL TIME 남자헬퍼 구함.
☎ : 597-1115

주중오후(4~11시)에 파타임으로 일할 여자분
구합니다. (도너스 가게)
스카보로. ☎ : 284-9325 (Mrs. 남)

연령 관계없이 애들을 돌봅니다.
삼복식품옆 핀치지역
☎ : 745-4521 (미세스. 손)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아침8시~오후4시)
☎ : 531-2689

인형만드는 재봉사 구함
인형만드는 10명의 재봉사와
카터와 끝맺음 하시는분 구함.
경험 있으신 분은 포맨(FOREMAN)으로씀
500 KEELE ST, UNIT 408.
☎ : 762-7241

회계사 구함(상점경험 요함)
자격|캐나다 대학이나 칼리지 이수
히스 CO. ☎ : 261-2914

매매및 양도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스토아 사정에 의해 급매코저함
☎ : 621-3412, 231-5351

밀튼에있는 버라이어티스토어 세일
좋은 수입과 위치
건강상 이유로 저렴한 가격에 팔고자함.
☎ : 878-5432(Mr. 프레스)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성업중인 레스트랑 매매 : FAST-FOOD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2층 2 베드룸 있음.
☎ : 255-6424 MRS. 김

여자혼자 운영할수 있는
쉽고 이윤이 좋은 세탁소 급매 합니다.
2687 EGLINTON AVE. WEST.
(직접내방요망) 미세스 강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1)빌딩(2층벽돌빌딩)
벽난로2개, 차고4개, 많은차가 주차할 수 있음. 파킹LOT
아스킹 : $210,000 제1모게지 : 62,000(10과2분의1%)
(2)벽돌 방갈로 하우스
5년(12%모게지)
벽돌난로, 3베드룸, 큰리빙룸, 다이닝룸, WORK SHOP
CALL DOVIS BURDA
☎ : 763-5555, 255-3038(CHOLKAN 복덕방)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TUCK SHOP 매매(아파트밑에 있음)
☎ : 244-0966(아침9~12시, 저녁6~10시사이)

스토아 급매
주 3천불 매상
☎ : 278-5944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매 매
PRIME WEST HILL에 위치한 성업중인 비지니스
야마하 모터싸이클, 스노우 모빌 세일과 서비스
직원이 항상 있음 가격 : $100,000
문의는 꼭 영어로 ☎ : 284-4751(JOAN MANUEL
A. E. LEPAPE ONT. LTD. REALTOR

밀크스토어를 찾으십니까?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스탁은 은행에서 모게지 조정가능
현재는 CHAIN 스토어임
지역 : 오사와, 버링톤, 해밀톤, 피터보로, CEAFORTH
, WALKERTON, KING CITY.
☎ : 624-5817 (Mrs. 차)

ROYAL TRUST

극장및 3개의 가게가 달린 코너에 있는 부동산
매매(블루어 선상에 있음)
극장(580석), 모든장비.
면적(6,000스퀘어피트, 파킹장소 있음)
써브웨이 부근.
보다 자세한 정보는
☎ : 532-3391, 924-0117 (KISHOR JANI)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피크링프라자(2개 스토아중 선택)
주매상 : $8000—(1600또는3300스퀘어피트)
에스킹 : $89,000+스탁
● 오샤와(MAIN ST)
주매상 : $9000(INCLUDING LUNCH COUNTER)
+로타리 티켓)
렌트 : $375, 아스킹 : $42,000+스탁
※BAGOT REALTY INC(REALTOR)
☎ : 1-579-4010
AFTER HOURS 683-8154 프랜크·마그네스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
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베커 후렌차이스 매매
☎ : 742-1281 (Mrs. 최)

2DOOR COOLER 매매
거의 새것임
☎ : 298-3584

집매매 또는 세놓음
4 BDRM, 2 W.RM, REC.RM, C.AIRCON
학교와 교통편리
ROYAL YORK RD. AT MANCHESTER ST.
☎ : 368-9018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악기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카펫 · 카텐

가나안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췌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한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번 달 원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쿨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피 · 김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월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3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기 타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니폰 · 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보 석

다이야몬드 · 스타
공장자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 B) 284-9325 R) 281-1954 Mrs 남

SOME JEWELLERY 쏘메쎄라
●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구 혼

구 혼
본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초, 재혼을 불문코 성실한분을 찾고자 합니다.
재능을 갖추고 있음(특히 가게하실분)
☎ : 469-1521

집·방세·하숙

방세놓음 (독신자 원함)
$180 PAPE서브웨이에서3분거리.
☎ : 466-3764, 282-0236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金利 내년에 引下

經濟정책 物價安定 최우선

申부총리、豫決委설명

總通貨 22%線 억제

◇6일 국회豫決委에서 새해예산안 심의벽두에 인사차 출석한 南悳祐국무총리(左)가 제안설명을한 申秉鉉부총리와 얘기하고있다.

국회는 6일하오 豫決委를 열고 총규모 9조5천9백56억원의 8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 申秉鉉부총리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申부총리는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인 새해의 경제運用施策에 대해 『物價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 도매물가 상승으로 12~14%線에서 안정시키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總通貨증가율을 22%내외로 억제하고 財政의 緊縮基調를 견지해 나가기위해 새해예산안의 규모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財政赤字를 축소토록했다』고 말했다.

產業지원體制개선·公正거래制度 定着

그는 이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增大하고 內需를 착실하게 振作시켜 8%의 경제성장을이룩하겠다』고 말하고 『이를위해서는 물가안정추세에 맞추어 金利를 適正하게 下向조정하는 한편 産業支援제도를 합리화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한편 수출시장의 多邊化와 상품의 품질을 개선, 수출경쟁에 對處하겠다』고 다짐했다.

申부총리는 이밖에 새해경제運用施策으로▲社會개발추진과 교육환경개선및 零細民생활안정▲각종경제행정제도의개선、產業政策協議會의효율적운용및 公正去來 제도정착▲농업생산기반확충의계속추진과 중소기업지원으로 산업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申부총리는 『새해예산은물가의 安定, 성장 잠재력의개발및 사회개발의 擴充에 重點을두어 편성, 執行과정에서 경기조절 기능을 提高, 通貨관리에 기여할수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하고 『공무원의 定員을 減縮 운용하고 예산의 浪費要因을 최대한 節減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李基旭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통해 『國稅수입이 81년전比27·2%가 증가한 반면 國稅이외收入은 오히려 52·1%가 減少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외경제與件에 비추어 成長전망 그자체가불확실요인이 없지않은 현시점에서 안정적인 財源확보를위해서는현재검토되고있는각종 稅法개정안에대해 새로운稅角에서 검토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플레에따른 累進효과를 완화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개정이나 課稅公平을 회복하기위한 각종稅法개정은 부분적인 조정만으로도 타당하겠으나 內國稅및 關稅減免의 축소개편은 좀더 확대추진시킬수있는 방안이 검토될수있다』고 밝혔다.

李위원은또 『教育稅 신설은 增大되는 재정수요를充足하기위해 불가피한 부담이나 다만 교육세가 不況속에 맞이하는 추가적인 국민부담이라는점, 그리고 보다合理的인 課稅방법등에 관해 論難이있을수있다』고 전제한뒤 『앞으로5차 5개년 계획기간중 교육환경 개선뿐아니라 다른 복지개발 사업에도 쓸수있는 새로운 稅源이 발굴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24개로 운용규모가 5조3천5백53억원에 이르고있는 각종 基金중에서 규모가 零細해서 실효성이희박하거나 목적이 유사한것은 재검토, 統廢合해야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出損金과 補助金을 전면적으로 再檢討하여 재정이 맡아야할 부문과 民間으로 넘겨주어야할 부분을 명확히 하는 동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李위원은 『현재 체금융자금중 40·8%를 차지하고있는 政策資金은 많은 산업에 적용됨에따라 재정부담이 커지고 동일산업에의 중복지원 또는 자금간의 불균형등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정책자금을 한번에 없애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전략산업의 조정·정상적금융방식의 개선등을 통해 재정부담과 재정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이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人的控除 17만원으로

國會常委질의 教育稅징수方法 再考 底意는"

국회는 6일하오 財務委를 續開, 교육세와 所得稅法개정안등 정부가제출한 10개稅法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金在暎 林鍾基(이상 民韓) 朴鍾寬(民正) 李洙鍾(議政) 趙炳鳳의원(국민)등은 정책질의를 통해 교육세신설과 근로소득세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이들 의원은 『교육세의 재산세 附加방법등을 再檢討하겠다는 정부의 뜻은 무엇인가』고 묻고 金利와 換率조정에대한 정부측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의원은 所得稅法에 대해 『人的공제액을 17만원으로 인상할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서민생활보호와 中產層육성에 主眼點을두고 최고 최저稅率을 모두 引下조정할 생각이없느냐』고추궁했다.

이들은 또 ▲현행月給與50만원이하에게만주고있는 보험료 의료비의 공제제도의대상을 전체근로자로확대 ▲교육비공제제도의 신설 ▲양도所得稅의 공제액인상등에 대해 정부측의 견해를물었다.

이들은 또 『附加稅의 모순점이 많다면 이번 會期중에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課稅特例者의 범위를 上向조정 擴大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특별소비세에 대해 대중화되어있는 소형컬러·TV와 냉장고등의 稅率을 인하하는 대신 녹용 해구신등에 重課할수 없느냐고 추궁했다.

金泰洙(民韓) 羅雄培(民正) 李聖秀의원(국민)등은 『정부기구축소 조정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삭감 조정할생각이 없느냐』고 묻고 5차5개년계획의修正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내년도 국민의 조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교육세대신 關稅減免의 축소, 조세감면범위의 축소, 보조금抑制등으로 교육재정 財源을 充當할수없는가』고 물었다.

夜間통행禁止 해제 국민당 建議案제출

국민당은 6일 상오 『夜間통행금지해제에 관한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金輪宣의원등 소속의원 25명全員의 이름으로된 이건의안은군사또는치안상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82년1월1일을기해 전국일원의 야간通禁을 전면해제할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家口 32·9%가 셋방살이

核家族따른 住宅難가중

總家口 7百69萬8천

百家口當 住宅 72·3戶로 줄어

우리나라전체家口의 39·2%、서울家口의 53·6%가 셋방살이를하고있고 그나마 서울家口의 43·7%가 단칸방신세를 면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도시집중과 核家族化에따른 住宅난의 심각함을 나타내고있다.

6일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이 지난해11월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센서스 結果에따르면 아침 러시아워에 한강을 건너는 통근·통학인구는 69만명에 이르고있어 대도시 都心기능分散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있고 工業化에따른 離農과 인구의 도시이동현상을 반영、전체인구중 고향을 떠나 사는他鄕살이 인구비중이10년전의 21%에서 30·2%로 높아지고있는데다 서울인구의58·5%、釜山인구57·1%가 外地에서 전입해온 사람으로 집계됐다.

전국 총가구수는 5년전보다 19·9%가 늘어난 7백69만8천. 이중 난방연료로 연탄을 쓰는 가구는 69·9%, 林産연료(장작등)를 쓰는집이 전국평균22·6%로 여전히 시골郡部지역은 아직 52·6%에 이르고 기름난방가구는 4·2%에 불과했다.

15세이상 인구중 死別·이혼등 과부·홀아비인구가 8·3%나 되는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未婚인구는 남자4백87만8천명、여자3백54만7천명으로 처녀 총각비율은 대략 5대7로 총각 장가들기가 더 어렵게 되어있다.

간이 自家수도를 포함 수도물먹는 가구는 여전히 전체의 78·1%、市지역 가구중에도 16·2%가 上水道혜택을 받지못하고있다.

전국주택수는 5백46만3천戶로 5년전인 75년보다 13·4% 64만7천戶가 늘었지만 核家族化진전에 따라같은기간중 家口數는 19·9%가 늘어 1백가구당주택수는 75년의 75·6戶에서 작년에는 72·3戶로 오히려줄었다.

이에따라 두칸이하의 방을 쓰는 가구가 전체의 67·8%로 대부분이고 自家소유비율은 57·9%、그나마 0·7%인 5만7천가구가 판잣집에 살고있다.

요르단 公共事業相 全대통령 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6일하오 청와대에서 요르단의 아우니·알·마스리公共事業省장관을 접견하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사진】 이자리에는 金周南건설장관과 金容烋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文敎部·大學總長긴급懇談

최근事態관련

"學園소요 同調者도 처벌"

學徒호국단 체제改善…學生 자발참여 유도

문교부와 서울大등 재경17개 종합대총장들은 최근의 일부학원소요에서 나타난 소수학생의 좌경화、폭력화경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대한 대책으로 학원소요자에대한 처벌범위를 넓히기로 하는한편 말썽이 되고있는 대학내학도호국단에 보다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수있도록 체제를 쇄신하기로 했다.

서울大 학원사태와 오는8일 李奎浩문교장관의 출국(스위스·제네바 제38차국제교육회의참석)을 계기로 5일하오 문교부상황실에서 가진 문교부·재경대학총장간담회는 교수에게까지 폭력과 오물세례를 가한 최근의 학생데모양상을 분석하고 학원내 폭력을 예방·근절하기위해 지금까지는 주모자급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동조자」까지도 처벌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간담회는 서울大소요와 관련, 그 처벌범위가 제명13명, 무기정학 47명, 유기정학 11명등 모두 71명이나 됐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적극적인 동조자까지 처벌한 서울大의 징계범위가 타 대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할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동조자」의 범위에 대해 『이는 각 대학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또 서울大소란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일부학생들이 학도호국단을 불신, 학도호국단이 주최하는 축제행사를 폭력으로 저지한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하고, 봄·가을 2차례 열리는 대학 축제를 1회로 줄이고 프로그램도 전체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결정하기로했다.

또 기존학도호국단의 운영체제를 쇄신, 취미·특기·서클뿐아니라 소위 의식화됐다는 학생들이 가입하고 있는 지하서클도 양성화시켜 이를 가입시키기로 의견을모았다.

社告

日人「뮤지컬 春香傳」

오는 21·22일 來韓공연

◇지난달 日本 오오사까에서 공연되어 절찬을받은 「뮤지컬 春香傳」.

「호리호크·아카데미」… 國立劇場서

日서도 絶讚, 양국藝術교류 큰轉機

일본인들이 일본말로 공연하는 한국의 고전극 「뮤지컬 春香傳」이 오는21·22일이틀동안 국립극장무대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일보社 日刊스포츠초청으로 갖게되는 이색다른 무대는 일본의 대표적인극단 「호리호크·아카데미」가 마련한것으로 이미 지난달 일본에서 절찬을 받은바 있었읍니다.

일인들에 의한 「春香傳」공연은 우리고전문학의 향기가 국경을 초월할만큼 높다는 뜻이되며,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예술적인 교류에도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뮤지컬 春香傳」무대에는 李夢龍역의 니시까노·아끼라를 비롯 春香역의 요시모또·마유미(吉本眞由美), 卞學道역의 쇼후꾸떼이·니가꾸(笑福亭仁鶴)등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가수, 탤런트, 만담가등이 총출연하고 있어 일본劇壇의 수준을 가늠할수있는 기회가될것입니다.

지난 34년간 일본공연예술계를 대표해온 호리호크·아카데미의 대표 스또·게이꼬(須藤圭子)여사는 『한국공연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싶다』고 의욕을 보이고있읍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韓日文化교류를위해 롯데그룹서 특별협찬합니다.

◇會員券

21일·22일저녁
- ▲S석 10,000원
- ▲A석 8,000원
- ▲B석 7,000원

22일낮 공연
- ▲S석 8,000원
- ▲A석 7,000원
- ▲B석 6,000원

◇豫賣處
- ▲한국일보사업부 722-1472
- ▲코스모스백화점 776-0311
- ▲대한음악사(明洞) 776-0577
- ▲삼익피아노(충무로) 776-1117
- ▲세고비아 기타(종로2가) 724-6161
- ▲이태백안경 735-5103
- ▲종로서적 722-2331
- ▲교보문고 736-6191
- ▲뷔엔나안경(서대문로터리) 392-0416
- ▲광생약국(이대입구) 362-7372
- ▲중앙악기사(종로2가) 267-7900

주최: 한국일보社 · 협찬 롯데그룹

社会漫評

갈수록… 거리만…

地平線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것을 보려고 해마다 3월하순에 모여드는 구경꾼이 25만명이나되는 곳이 미국에 있다. 캘리포니아주 산후앙 캐피스트러노라는 곳이다. 아르헨티나에서 겨울을 난 제비들은 2백여년전부터 지금은 폐허가 돼버린 교회의 종각을 아파트삼아 살아왔다. 그러나 구경꾼들이 모이면서 제비들은 차츰 보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 해마다 줄어들고있다.

▼캐피스트러노가 제비관광지로 이름이 난것은 최근 수십년의 일이다. 제비가 줄어들자 이곳 주민들은 높이 31m가 넘는 새로운 종각을 2백50만달러(17억2천5백만원)나 들여 내년부터 지을 작정으로 있다. 말하자면 새로운 제비 아파트를 짓자는 계획이다. 거기엔 먹고살기 넉넉한 미국사람들의 실속없는 짓이라고 비웃을수 없는 장사속이 들어있는 것이다.

▼새를 보호하자는 운동으로 말하면 9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왕립조류보호협회가 아무래도 세계제1이라고 할수있다. 1889년 새의 깃털을 모자에 달지말자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단체다. 회원은 지난 8월현재 35만명, 매주 1천명의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은 전국에 80개의 보호구역을 지정해놓고 감시원을 배치해두고 있다.

▼생물학자에서 사업가와 샐러리맨에 이르기까지 왕립조류보호협회의 회원들은 한해 7파운드(약 9천원)의 회비를 내고있다. 회비수입만 한해 2백50만파운드, 우리돈으로서 32억원이 넘는돈이 된다. 이밖에도 사업수입이 2백만파운드(25억8천만원)에다 상당한 기부금과 신탁수입이 있다. 이돈으로 2백5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보호구역으로 만들 땅을 사들이기도한다.

▼영국의 로크가든에는 한해 5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있다. 그러니까 새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보호이상의 현실적인 뜻도 있는 것이다. 아시아 최대의 철새낙원인 우리나라의 낙동강하구도 그런 뜻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수있다. 『자연보호의 경제성』을 구체적으로 다시 셈해보자는것이다.

▼민물과 바닷물이 엇갈리는 낙동강하구 델타지역 갈대밭과 개펄에는 자그마치 1백30여종의 철새들이 찾아들고 있다. 여기에다 둑을 쌓아 바닷물을 막는다면 생태계에 변화가 올것은 당연하다. 둑을 쌓지말라는 국제자연보존연맹의 주장은 배부른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일수도 있다. 그러나 권위있는 학술조사와 새로운 장사속계산이 필요하다. 개발은 언제나 할수있지만, 한번 사라진 철새는 영원히 돌아오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독 신청은 (416)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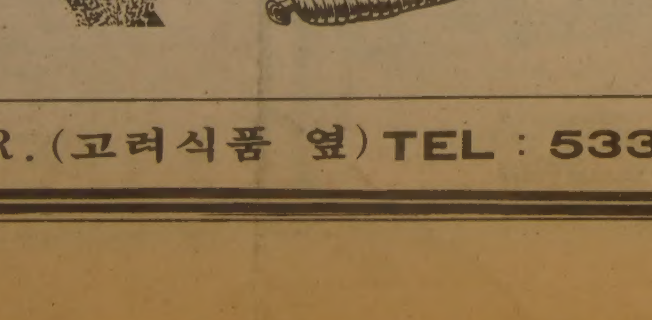
빅세븐선물센타 (구아세아 선물센타)

—GOOD NEWS—

〈기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동안 교민 여러분의 성원속에 날로 성장해온 아세아 선물센타는 금번 위와같이 「빅 세븐 선물센타」로 상호를 변경하고, 아울러 "중국본토"로부터 직수입한 「각종 한약재」와 한국의 최고급 「인삼」을 교민여러분께 특별대매출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한약〉
- 중국길림 흑룡강녹용 1냥 $59.
- 십전대보탕 1첩 $8.—
- 북경로얄제리 100정(2병) $20.—
- 편자황(진품100%) $290.—
- 우황청심환, 호른환, 웅담, 북경산 위장약등 각종약재, 녹용정



〈밍크및 각종털제품 염가매출〉
- ●각종 물개가죽 핸드백
- ●블루·폭스, 레드·폭스, 실버·폭스 목도리및 칼라.
- ●밍크 숄, 밍크자켙

※이외에도 각종 선물용 구비했읍.

6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 옆) TEL : 533-7966 대표 김 영 철

스웨덴、蘇潛艦 추방
乘務員 56명함께 公海밖으로

【스톡홀름6日AP=합동】 스웨덴의 카를스크루나군도해역에서좌초되었던소련잠수함이 56명의승무원을 태운채 좌초9일만인 6일아침 스웨덴영해를 벗어나 공해상으로 추방되었다고 스웨덴해군당국이 이날 발표했다.

이날 추방된 소련잠수함은 2대의 스웨덴 헬기를 포함해서 소해정1척, 초계정3척, 수뢰정3척등으로 구성된 對잠수함戰團의 호위를 받았다.

해군당국은 총24㎞에 달하는 영해를 벗어나려면 3~4시간이 소요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잠수함은 공해상에서 대기하고있는 소련의 카신급구축함 한장 알렉세이·카리닌소장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추방된 蘇潛艦성능

【카를스크루나(스웨덴)5日AP·UPI=합동】 스웨덴의 군사제한수역을 침범했다가 좌초, 물의를 일으킨 소련의 위스키급 잠수함은 우라늄238외에도 8기의 核탄두장착어뢰를 적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스웨덴해군관계자들이 5일 말했다.

이들은 발트해에 주둔하고 있는 52척의 소련위스키급 잠수함에도 核무기가 만재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카를스크루나해군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스벤·칼손중령은 사고잠수함을 조사해본결과 우라늄238을 함유한 어뢰발사관이 발견됐으며 이사실로 미루어 여차하면 핵무기도 발사될수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카를스크루나기지의잠수함전문가인 군나르·라스무센중령은『核탄두를 장착하고있는것으로 믿어지는』8基의 어뢰가 선내에 적재돼있었다고 말했다.

사우디、蘇포함…安保理관리로
中東평화 國際會議 제창
"蘇도 8개항支持해야" 아랍頂上會談서도 同意
파이잘外相

【리야드5日AP=합동】 사우드·알·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외상은 5일 中東평화진전을위한『최선의 방법』으로 蘇聯도 참석하는 유엔安保理관리하의 국제회의를 개최할것을 주창했다. 파이잘외상은 이날 사우디관리들과 사우디를 방문중인 캐링턴 英國외상간의 會談이 끝난후 기자회견을통해 中東평화를 진전시키기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주창하면서『물론 蘇聯도 협상에 참여해야한다』고 말하고 蘇聯이 사우디의 8개항中東평화안을 지지해줄것을 희망했다.

한편 EEC(歐共市)이사회의장 자격으로 3일동안 사우디를 방문한 캐링턴英國외상은 사우디를 떠나기에앞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中東평화문제해결에 관한 사우디와유럽의 견해는『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 완전반환하는 82년4월25일 이전에는『어떠한 후속조처도 불가능할것』이라 말하고『우선은 모든 국가들이 이지역모든 국가들의 평화적생존권을 인정해야 하며 둘째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人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EEC의 입장을 대변했다. 캐링턴외상은 그러나 사우디 평화안중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가 돼야한다는데는 EC가 반대하고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에 나붙은 反中性子彈 포스터
11월7일의 소련혁명기념식이 거행될 모스크바 붉은광장근처에 미국의 중성자탄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서있다. 【모스크바5日UPI=합동】

對蘇「示威的核공격」시비
國防省 圖上作戰 시나리오에 不過
난처한 白堊館선 "모두옳다" 해명

◇헤이그국무장관

◇와인버거國防장관

헤이그국무장관과 와인버거국방장관이 그 實在여부를놓고 상반된 발언을해서 물의를 빚고있는「示威的核공격」은 美국방성이 정기적으로 벌이는 圖上작전시나리오에서 검토된 한가지 안에 불과하다.

이 제안은 소련의 체코침공 2개월후인 지난68년10월당시 클리포드 美국방장관이 나토核기획위원회에 정식제기한바있다. 당시 클리포드는 우발적인 核전쟁발발을 막기위해 15개 회원국 모두가 동시에 당겨야만 核개전명령이 하달될수 있는 방아쇠장치를 마련하자는등 여러개 방안중 하나로 엄포용 核공격안을 내놓았던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다수회원국의 호응을 못얻어 채택되지 않았다. 15개회원국이 당기는 核전방아쇠안도 마찬가지 운명을 겪었다.

하지만 나토안에서는「示威용 공격구상」이 완전히 사멸되지 않고 核무기를 시베리아의 툰드라나 北극같은 人命피해를 주지않는곳에 떨어뜨려 核무기로 서방이 대응할뜻만을 전달하는 쪽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유럽에서 전쟁이 확대、혼란에 빠진가운데 그런 시위용 공격이 소련한테 받각되지않은 가운데 이뤄지기도 어렵고 또 소련이 그것을 본격적인 核공격으로 간주할 위험성이 더 많다는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나토사령관을 지낸 헤이그장관은 이 안이 여전히 나토독트린으로 살아있다고 말해서 말썽이 났다.

한편 딜레머에 빠진 백악관측은 두사람의 말이 모두 맞다고 해명했다.

헤이그의 말은 여러제안중 하나로 검토됐다는 점에서 맞고 와인버거의 말은 그게 나토독트린으로 돼있지 않다는점에서 맞다고 했다.

이번 시비는 유럽전쟁이 터졌을때 나토측이 어떤 대응을 할것인지를 애매하게 해놓았다는점에서는 나토에 좋은 뉴스다. 하지만 레이건의 유럽核제한 전술전발언으로인한 파문이 가라앉기전에 다시 核시비가 일어남으로써 레이건행정부에 핵전쟁에 관한 정책에 과연 있는가 의심을 샀다는점에서는 나쁜 뉴스가 되고있다. 【워싱턴6日UPI=합동】

蘇、潛艦사건에 屈辱감수
口頭사과후에 船長심문까지 허용
對北歐 3개국 平和공세에 큰打擊

◇감시당하는 蘇잠수함.

소련은 지난27일 스웨덴의 카를스크루나 해군기지내에서 좌초한 잠수함을 돌려받기는 했으나 외교적패배와 위신추락을 감수해야만 하게됐다.

잠수함좌초사건이 양국의 외교분쟁으로 확대되자 소련은 스웨덴에 대한 구두사과만으로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 했으나 스웨덴의 태도는단호했다.

스웨덴은 잠수함함장을 하선시켜좌초경위를 직접심문할것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 시켰다. 소련은 구진함장에 대한 스웨덴의 2차례 심문을 허락했고 잠수함과 승무원 56명의 석방대가로 잠수함에 대한 스웨덴의 만족할만한 조사를 허락하고 잠수함 석방비용은 소련측이 부담한다는등의 굴욕적인 양보를 해야만 했다.

국제법상으로 치외법권과 면책특권이 보장되어있는 군함의 지휘관이 영토국의 심문에 응한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스웨덴은 이번 잠수함사건에 대한 강경한 對蘇협상태도를 관철함으로써 소련군함이 스웨덴영해를 침범하는것에 쐐기를 박았다.

총2천7백㎞에 달하는 스웨덴해안선은 소련함정과 발트해와 북대서양을 연결하는 전략지역이다.

스웨덴은 소련의 영해침범이 80년에 13건, 올해도 4건에 달했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소련은 北歐3국(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에 취해온 평화 공세에서 심각한 외교적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미국이 스웨덴등 北歐중립국가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北歐3국에 非核지대설치를 제안하는등 평화공세를 취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사건을 계기로 소련의 北歐3국에대한 평화제의는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돼버렸다.

유럽을 휩쓸고 있는 反美·反核선풍을 好機로 삼아 이미지쇄신을 피하려했던 브레즈네프의 속셈은 엉뚱한 잠수함사건으로 인해 크게 손해를 본셈이다. 〈李炳圭기자〉

示威的 核사용 流動的
白堊館·國務·國防省 나토核戰略에 異例的성명

【워싱턴5日UPI=합동】 다음은 물의를 빚은 헤이그국무장관의「시위적핵발사」발언과관련 美백악관과 국무·국방성이 5일 발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核전략에 관한 성명 전문이다.

나토의 전략은 침략에대한 가능한 광범위한 대응책으로서 적에 대항하도록 계획돼 있다. 나토의 모든 전략은 폭력행위를 최저수준으로 억제하려는데 있다.

나토는 核사용문제와 관련하여 수년전 이른바「시위적사용」을「가능한 선택방안의 하나」로 고려한바 있으며 헤이그국무장관이 4일언급한것은 바로 그점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와인버거국방장관이 5일 밝힌바와같이 나토는 이에대해 아직 어떠한 세부 계획도 갖고있지 않으며 核무기의 시위적사용에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내부에서 심각한의문이 제기되고있다.

따라서 이문제는 전후사정이 무시된채 이해돼서는 안되며 나토의核억지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언급하는것이 중요하다.

기본적 사실은▲소련이 평화와 군축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방에 대한 核위협을 가중시키고 있고▲미국은 유럽을 보호할 전략 책임이 있으며▲미국은 어느나라 못지않게 핵전의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따라서 레이건 대통령도 최근『핵전쟁발발시 모든 인류가멸망한다』고 말한것등이다.

伊、外交官 총기 許容
美大使암살설에 公館의保安도 촉구

【로마5日AP=합동】 이탈리아정부는 리비아가 맥스웰·M·랍 로마주재 美國대사를 포함, 유럽여러나라에 주재하는 美國대사들의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응하여 외국외교관들에게 보안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총기휴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이탈리아외무성관리들은 5일 밝혔다.

보안강화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공한이 지난10월29일 모든 로마주재외국공관에 발송됐으며 이와 동시에 외무성은 각국 대사관에 대해 대사들의 이탈리아內 공식출장이 있을경우 이를 미리 이탈리아당국에 통보, 적절한 보안조처를 받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의 이같은 조처는 리비아가 랍대사등 유럽여러나라의 美國대사를 공격목표로 삼고 있다는 주전의 보도에 이은 사태발전으로 그당시 보도들은 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가 지난8월19일 분쟁지역인 시드라灣에서 있은 美공군기의 리비아제트기 격추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美國대사들을 저격하기위해 저격수들을파견했다고전했었다.

波政府·勞組대표 내주에 확대協商

【그다니스크5日AP=합동】 폴란드공산당정부와 자유노조대표들은 다음주말 폴란드의 사회·경제문제에 관한 확대쌍무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폴란드 정부측은 이회담에서 노조에 몇가지 양보를 할 의사를 비쳤다고 자유노조관계자들이 5일 말했다.

빠르면 11일發射 늦으면 그다음週
콜럼비아號

【케이프커내버럴(美플로리다州)5日UPI=합동】 4일 발사31초를 남겨놓고 발사가 연기된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는 빠르면 오는 11일, 그렇지않으면 그다음주에나 발사될수 있을것이라고 콜럼비아호 발사책임자인 조지·페이지씨가 5일밝혔다.

日의 防衛費수준 GNP1%가타당
美下院外交위원장

【워싱턴4日합동】 미의회내에서 최근 미일안보조약개정의안 등이 제출된데 이어 클레멘트·자블로키 미하원외교위원장(民, 위스컨신)은 4일 日本정부에 방위비를 적어도 국민총생산(GNP)의 1%수준으로 증액시킬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식제출했다.

자블로키위원장은 이결의안에서 아시아의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소련의 도전에 대처하기위해 미국과 일본이 최대의 공동노력을 기울일것을 촉구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방위부담을 분담하는데 있어 완전한 동반자 관계및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자체방위에 대한 기여도를 한층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中共、核潛艦 첫進水

【파리5日합동】 중공은 12기의 전략핵미사일을 발사할수있는 최초의 핵추진잠수함을 지난4월30일 진수시켰다고 프랑스의 권위있는 해군연감『전투함대』가 5일 간행된 최신호에서 밝혔다.

2년마다 발간되는 이연감 최신판은 12기의 전략핵미사일을 장착할수있는 중공최초의 핵추진잠수함이 지난4월30일 北京북쪽 요령성에 있는 호노도조선소에서 진수됐다고 말했다.

다음 유엔事務總長은 누구
페루出身 쿠엘라르 가장有望人士로
中共발總長거부 제3세계人物 고집

◇발트하임(左)과 나란히앉은 쿠엘라르.

【유엔본부5日UPI=합동】 유엔사무총장직3선을노리며출마한 쿠르트·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은 8번이나되는 중공의 거부권행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으나 오는12월 이전에 당선되기는 힘들것 같다고 5일 외교관들이 말했다.

차기 유엔사무총장은 제3세계출신이어야한다는 중공의 주장때문에 발트하임당선이 좌절될경우 발트하임의 하비에르·페레즈·데·쿠엘라르가 가장 유망하다.

현재 유일하게 발트하임에 도전한 후보는 살림·아메드·살림 탄자니아외상이다.

그는 미국에의해 3번이나 거부되었으며 지난5번의 투표에서 최소한 9표의 찬성을 얻어야하는 조건에 미달됐다.

그러나 진·커크패트릭駐유엔 美대사는 살림외상을 知的이면서도 정열적인외교관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가 당선되면 훌륭히 사무총장직을 수행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이 살림을 한때「배우」라고 지칭하면서 워싱턴으로부터 살림외상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엔안보리는 오는 9일 다시 회의를열고 다른후보를택해 재투표해보자는 몇몇 대표들의 의논, 현재 교착상태에빠진 사무총장선출문제를 다룰예정이다.

안보리는 지난71년 발트하임이 핀란드의 막스·야콥슨을 누르고 당선될때 겪었던 경험보다도 더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야콥슨은 처음에 미국 중공 영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소련과 프랑스로부터는 거부됐으나 나중에 미국도 발트하임 당선을위해 거부로 돌았고 이어 중공 영국도 기권하는바람에 결국 당선에 실패했었다.

발트하임지지자들은 제3세계인물이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한 중공은 발트하임에 대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것으로 보고있다. 그렇게되면 페루의 페레즈·데·쿠엘라르가 당선될 가능성이높다.

海外토픽
英皇子妃임신 ★내년6월께 出産

다이애너 영국황태자비가 내년6월께 첫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버킹검궁이 5일발표했다.

버킹검궁대변인은 엘리자베드 영국여왕이 수일전 찰즈황태자부처로부터 직접 황태자비의 임신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밝히고 왕실가족은 이같은 소식에 모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7월29일 결혼한 다이애너황태자비의 건강이 매우 양호하다고 전했는데 태자비는 4일 영국 의회개원식에 참석했었다.

대변인은 다이애너 황태자비가 일부 공식모임에 참석하지못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를 양해해줄것을 바라고있다고 덧붙였다. 【런던=합동】

◇10세少年의 老化病 불과 10세의 나이면서도 할아버지를 닮은 러셀·에또·듀포군이 집에서 드럼을 연습하고 있는 모습. 신장31인치, 몸무게 16파운드에 불과했던 듀포군은 희귀한 老化病에 걸려 이처럼 늙어버렸는데 그는 5일 심장마비로 보이는 증세를 일으킨후 사망했다. 【걸프포트(미주리)5日AP=합동】

心臟病환자確認法 개발
美、앙기나測定心電圖로

【보스턴(美매사추세츠州)5日AP=합동】 흉곽외과병원에서 전기심동측정법으로 이용되는 심전도만으로도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위험이있는 심장마비환자를 가려낼수 있는 분석방법이 최근 미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의 존즈·홉킨즈병원의사들에 의해 창안됐다.

이 병원의사들은최근호「잉글랜드의학지」에발표한 보고서에서 심장마비를일으킨후 수일이내에 국소빈혈증에 따른 앙기나(狹心症)를 일으키는 환자들의 경우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앙기나의 발생이 심전도로 포착될수 있다고 말했다.

앙기나는 심장이 혈관수축에 따른 국소적인 빈혈증세로 산소공급을 충분히 받지못할 경우 야기되는 심장통증의한 유형으로서 심장마비 촉발후 곧 발생할경우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게 된다.

메아리
인구와 住宅

줄어든 출산율, 늘어난 이혼율, 게다가 젊은이들의 가정이탈등으로 미국의 가족제도는 스스로가 놀랄만큼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핵가족제의 가속화로 1가구의 평균 가족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미연방정부의 국세조사에 따르면 70년 3·1명의 가족수가 지난 80년말 현재 3명이하로 내려가 2·75명으로 감소됐다.

일반적인 핵가족의 개념은 부부와 2명의자녀를 둔 가정을 뜻한다. 이런 가정은 미국에 실제로 많지않다는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난10년사이 거의 3배로 늘었다.

일본은 지금 인구감소시대에 접어 들었다. 厚生省의 통계론 작년에 출생·혼인율이 사상 최저였고 반대로 이혼율은 최고였다. 일본의 인구감소는 7년째 계속되는 현상으로 이런 저런 원인때문에 가구당 평균가족수도 3·25명선까지 줄어든 추세를 나타냈다.

경제기획원의 80년인구·주택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평균수는 핵가족의 영향으로 4·6명선에 이르렀다. 가구수가 75년 5백64만명에서 지난 80년엔 7백96만으로 부풀어올랐다.

이조사결과는 장차 많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을 드러냈다. 가구수의 증가로 인한 주택난의 심화, 전근대적인 연료사정, 여전히 걷잡을길 없는 인구의 대도시집중등이다.

지난 여름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지가 아시안 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서울을 4번째로 집세가 비싼 도시로 꼽았다. 한달 평균 집세가 한편에 2만6천6백원꼴로 계산 되었다. 가옥의 구조 형태 위치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집세는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다는 홍콩의 절반가량이다.

주택사정이 나쁘고 비싸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75년 71·2%에서 80년엔 68·6%선이된것으로 분석했다. 가구수는 5년간 19·9%가 늘었는데 주택 증가는 13·4%에머물렀다. 더욱 1개의 방을 사용하는 가구가 32·9%나된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 아닐수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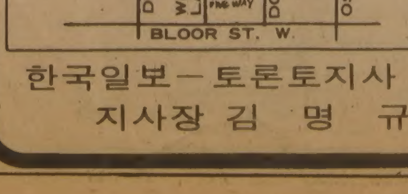
주택난과 함께 걱정되는것은 연료문제다. 전체가구의 22·6%가 아직까지 장작이나 짚같은 임산물을 땔감으로 쓰고 있다는 딱한 실정이다. 센서스의 결과를 토대로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차근 차근 난제를 풀어가고 개선해 가야하겠다.

이전파티에의 초대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교민(독자, 광고주, 필자등)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이전파티에 대한 자리를 마련키로 하였사오니 바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아 래―

일 시 : 11월14일(토) 오후2시~7시
장 소 : 본사
주 소 : 1025 DUPONT ST.
(두폰×도버코트)
전 화 : 533-2361



한국일보―토론토지사
지사장 김 명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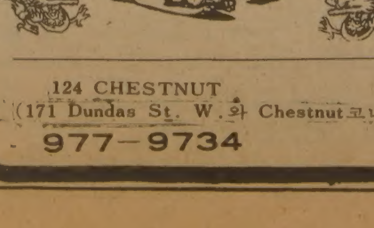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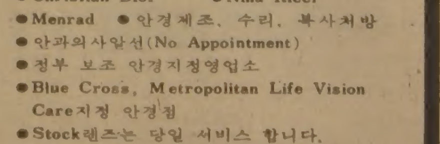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도넛샵 :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1숨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숨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 $5,500, 주매상 : $7,000,
주매상 :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海外同胞낀 間諜 일당9명檢擧

安全企劃部발표

美등에 據點 북괴工作網과 접선

국가안전기획부는 6일 북괴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간첩교육을받고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해온 재미동포 洪善吉(50) 재일동포유학생 陳利則(23) 기술연수자 金長吉(39)등을 중심으로한 3개간첩망 일당9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기관은 이번에 검거된 간첩망은 모두 미국·일본에 거점을둔 북괴의 해외공작망과 연결되어 우회침투한 간첩들로 국내연고자들을 포섭, 해외여행또는 이민주선등의 방법으로 입북을유도 인하기나 학원소요등을 배후조종해 사회불안을 획책했고 군사기밀탐지및 산업정보수집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밝혔다.

學園소요획책、軍·産業정보수집 報告

洪善吉사건 平北新義州 출생으로 1·4후퇴때 월남, 서울 釜山등지를 전전, 기계기술공으로 종사하다 77년12월 취업을 위해 미국에 건너가 재미교포간첩「폴 張」(43·한국명 張慶煥)에 포섭됐다. 지난 6월13일 재미교포商人 金成洛등과 간첩「폴張」의 안내로 오스트리아의 빈에 도착, 그곳주재 북괴공관요원 金모등의 안내로 프라하와 모스크바를 경유 平壤에 도착, 金日成주체사상과 한일투쟁 북괴의 사회제도 선전과발전상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당위성등 정치사상 교양을 받았다. 洪은 재미교포중 입북대상자를 찾아 대동입북하고 난 다음 북괴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침투해 동조자를 물색해서 도미시켜 입북계기를 조성하는한편 모든정세를 수집하라는등의 지령과 왕복여비등 공작금조로 미화1천5백달러를받고미국으로돌아왔다. 洪은 그후 7월13일국내에 가족방문구실로 들어와 서울 城東區道詵洞거주 외사촌누이 張玉烈집에 체류하면서 친형 洪明吉, 東吉, 동서 韓明燮, 고향친구 白樂九등에게 접근, 입북때 받은 가족사진과 안부를 전하며 북괴의 우월성과 발전상을 찬양 선전했다. 또 지령에 따라 국내거주 친구인 白樂九를 도미시켜 대동입북할 목적으로 자기부인인 崔鍾嵩과 위장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밖에 각종 국내사정을 탐지해 수집한는등의 간첩활동을 해왔다.

◇洪善吉

◇白樂九

◇陳利則

◇金長吉

陳利則사건 76년 일본 廣島大 재학시 조총련 廣島본부 정치부장 黃鎭大(40·북괴재일공작지도원)에게 포섭되어 약4년간 金日成 주체사상 및 남한혁명의 당위성등 사상교육을 받은뒤 자원, 80년3월 黃의 지령을 받고 모국유학생을 가장, 서울대 부설 재외국민교육원생으로 침투해 77년8월재일교포학생모국하계학교참가시알게된 外大생과 서울대師大생등을 통해 수집한 학원가의 불순유인물 살포및 지위상황등을 보고했음. 청와대 정문및 北岳山일대의 군경비 실태와 국가 주요시설의 경비실태, 10·26전후의 학원가 반정부 소요상황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일본에 돌아가 黃에게 보고하는 등 암약해왔음.

金長吉사건 金은 남로당원 金鍾虎(사망)의 아들로 釜山東亞大 부설 초급대학 졸업후 70년초 일본에 건너가 재일 북괴공작지도원 朴翔龍(58)과 접선, 세차례에걸쳐 日貨88만엔을 받고 70년9월 귀국했음. 玉浦조선소 건설현장에 취업, 조선소 건설현장 사진촬영, 국가기밀을 탐지, 朴에게 보고하는등 암약해왔음.

북괴, 國論分裂 획책 警戒를

당부말씀 국가안전기획부는 최근 북괴는 오는 82년4월 金日成 70회 생일이전까지 남침태세를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12제의」「6·5제의」와 남북한 단일팀 제의를 휘책하고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험주의적 노선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포를 포섭, 대남공작 기반을 구축하려는 북괴의기도를 경계할것과 악성유언비어·날조등 민심동요를 획책하는 북괴의 소위 「통일전선」공작을 분쇄하여 반공기반을 한층 공고히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줄것을당부했다.

人命피해 내도 合意보면 運轉士 刑事처벌은 안해

—內務部, 도로交通法개정

綜合保險 가입도 合意간주

自家·영업용區別없이 적용

내무부는 6일 도로교통법을개정,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더라도 피해자와 보상합의를하면 운전사를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자가용, 영업용에 구별없이 적용할 이 개정내용은 또 사고운전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보상키로 한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했을경우에도 일단 합의한것으로 보기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골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에 있어 피해자가명시한 의사에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수 없다(反意思不罰罪)』는 규정을 추가한다는것. 이에따라 모든운전사는 피해자가 사망하지않을경우 합의하거나 보험에 들었을때는 형사처벌을 면할수있는 길이 트였다.

음주·亂暴운전등은 除外

그러나 음주 운전, 난폭운전, 무면허, 제한속도 20km이상초과, 중앙선침범및 신호위반, 추월, 일단정지 위반, 정비불량, 횡단보도의 행인보호의무위반등 8개 중과실에 대해서는 한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내무부의 이같은조치는 자가용이 대중화된데다 정부가 고급공무원들에게도 자가운전을 권장하고있는 시대적흐름에따라 이들이 대물사고뿐만아니라 인사사고를 냈을경우 구속되는등 형사처벌로 전과자가되는것을 막아주기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지난4월부터 대물사고에대해 反意思不罰罪를 적용한결과 73·9%가합의, 좋은성과를보여 이같은원칙을 대인사고에도확대 적용키로한것.

체비지拂下싸고 巨額詐取

전서울市직원 主婦등5명에 7천만원받아

대검중앙수사부 3과장 金道彥부장검사는 6일 체비지를 싼값에 사주겠다고 속이고 7천여만원을 가로챈 전 서울시비상계획관실 서무주임 朴根沃씨(33·서울江東區 遁村3洞 주공아파트323동105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지난 3월말 전자제품상 張현숙씨(42·여)에게 서울江南구 구정동842 체비지83평을 서울시 공개입찰가격보다 4천3백여만원이나 싼 3천7백여만원에 사주겠다고 속이고 계약보증금조로 1천2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지금까지 가정주부 강모씨, 崔모씨등 5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7천여만원을 갈취한혐의이다.

3母子가 연탄中毒

엄마죽고 兄弟중태

6일상오 8시30분께 서울 永登浦區上道洞609 金哲洙씨(42)집 문간방에 세들어 사는 朱玉順씨(58·여)와 朱씨의 2남 李明珍씨(24·공원) 3남 明寬씨(21·방위병) 형제등 3모자가 갈라진 방바닥틈으로 새든 연탄가스에중독, 朱씨는숨지고 明珍씨형제는 신음중인것을 주인 金씨의부인 李福心씨(34)가 발견했다.

李씨에 의하면 이날 마당에서 빨래를하던중 문간방에서 신음소리가들려 문을열어보니 明珍씨형제가 신음하고있어, 병원으로 옮겼다는데 明珍씨는 중태다.

父子가스 中毒중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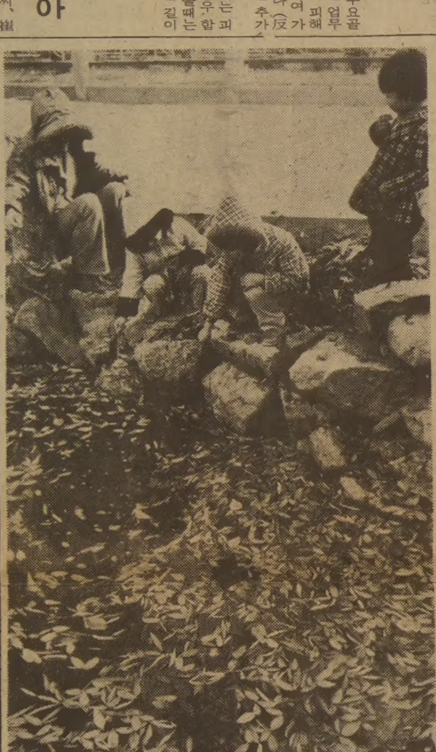
6일 상오9시께 서울城北區貞陵4洞36 金宇澤씨(61)집 건넌방에서 잠자던 金씨와 장남 永圭씨(22·방위병)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중태다.

가족들에 의하면 金씨는 전날밤 10시께『방에 가스가 스며드는것같다』는 아들 永圭씨의 말을 듣고 가스가 어디서 새는가를 알아보기위해 함께 잠을자다 변을당했다.

심장병 비관10代 入院中 투신自殺

【光州=軺】5일 상오 10시30분께 光州市東區鶴洞 全南의대부속병원 3층 비상계단에서 심장병 증세로 이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던 全南大법대1년 韓丙洙군(19)이 숨져있는것을 다른환자를 위문온 鄭모양(1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만성심장병증세로 이병원10층에 입원중이던 韓군이 평소 지병을 비관해왔다는 가족들의진술에따라 투신자살 한것으로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오늘立冬) 7일은 立冬。겨울이 생활의 문턱으로 성큼다가선다。서민들의 발걸음은 월동준비 걱정으로 초조해지게 마련이지만 물위에뜬 낙엽을 휘젓는 동심은 즐겁기만 하다。【6日하오昌慶苑에서 朴泰弘기자】

가정형편어려운 優秀中·高학생 모든教育費 지급

文教部

내년부터 市道費로

문교부는 6일 성적이 우수하고 학비부담이 어려운 중·고교생에게 공납금일체와 교과서, 학용품, 교복대등간접교육비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중·고교시도비(市道費)특별장학생제도」를 신설, 82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토록시도교위에시달했다.

문교부는 자연과학·예능·체육등에 특수한 재질을 가진자와 인문사회계의 성적우수자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내년에 신입생 1천명(중·고 각5백명씩)을 선발, 각시도비장학금을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수혜범위를 넓혀 전체학생정원의 1%(81년기준약4만명)가 혜택을 받게할 계획이다.

문교부가 마련한 장학금선발기준에 따르면 장학생선발은 학교단위로 하되 별도의 고사를 치르지않고 국민학교또는 중학성적·입학시험성적과 재학중 학교성적을 기준으로하되 학비부담능력이 없어야한다.

문교부는 이 특별장학금의 재원으로 내년에 우선 약4억원이 들것으로 보고있는데 장학금을 받게되면 중학생은 연간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게되는 셈이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좌석버스 乘車券制로 바꾼다

大型豫備버스 출퇴근시간에 集中투입

路線대폭신설·處罰규정強化

교통부는 6일 시내좌석직행버스의 정원초과등 무질서한 운행을 바로잡기위해 업체별로 보유대수의 30%이상의 예비차(대형버스)를 확보해 출퇴근시간에 집중투입키로했다.

내년부터 시행한 시내좌석직행버스 개선대책에 따르면 신흥주택지역및 합승선행지역에 시내좌석직행버스의 노선을 대폭신설, 차량도 증차해주고▲지그재그식으로 운행하고있는 우회노선을 현재 평균노선거리 39km에서 20km내외로 직선화해 운행시간을 30분이내로 단축시키며▲안전운행을 저해하고있는 운전사의 요금취수를 승차권제로 바꾸기로했다.

교통부는 장기대책으로는 환금노선과 비수익 노선간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기위해 지역별 공동배차운행제를 실시하고, 차종도 현재 25인승에서 37인승으로 대형화해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케하며, 우수업체지정제도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부는 또 정원초과, 주정차위반때의 처벌규정도 강화해 1차위반때는 현재의벌금 1만원~1만5천원을 3만원으로 늘리고, 2차위반때는 업체별로 보유대수의 5%의 1감차처분을, 월50%위반시는 노선및 보유대수의2분의1을취소하고1백%위반때는사업면허를취소하기로했다.

시내좌석직행버스는대체로 서울에 83개업체가 88개노선을, 부산에서 37개업체가 10개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淑大生 구속

示威선동 혐의

서울龍山경찰서는 6일 학교내에서 시위를 주동한 淑明女大 정외과3년 朴정양(21·道峰區 水踰1洞 50의54)을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朴양은 지난3일 낮11시30분께 淑明女大 서관육상에서 불온유인물 50여장을 뿌리며 핸드폰을들고 데모를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夫婦가 2억원詐欺

한마을 80여명契돈·私債챙겨도주

【光州=軺】光州市西區農城洞652 文永檀씨(48)가 한마을주민 80여명으로부터 거둔 곗돈과 사채등 2억원을 챙겨 부인 金금순씨(44)와 함께 자취를 감춰 경찰이 수배에 나섰다.

6일 李모여인(38)등 피해자들에 따르면 文씨부부는 지난79년4월부터 한마을주부 60여명을상대로 5백~1천만원짜리 계 20개를 조직, 운영해오다 지난10월분 곗돈 1억2천여만원과 閔모씨(40)등 20여명으로부터 빌린 사채 4천여만원등 2억원을 챙긴뒤 지난4일밤 행방을 감췄다는 것이다.

경찰은 文씨부부를 긴급수배하는한편 피해자들을 불러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중이다.

啓明大 관선이사회

理事1명 監事해임

【大邱=軺】啓明大 관선재단이사회는 6일 大邱시교위 상황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사표를 제출치않은 3명의 이사중 白俊燕이사, 李秋永감사를 해임키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재단분규에 대한 책임과 학교발전을 위해 元一漢 이사, 金奉忠관선이사등 3명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劉秉甲변호사와 李盛鉉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정관개정문제와 신임이사 선출문제를매듭짓기로했다.

모눈종이위의生 ⑭

趙善作 金光培畵 <247>

U감독은 내 손에 들린 빈 봉투를 받아 다시 코피를 따랐고, 조금 마셨다. 나는 U감독의 말이 이미 귀에 들리는 듯 만는동이었다. 그가 어딘가 산에 들어가 한 달쯤 꿍꿍대다 나왔다고 나호소했다는 말을 들었을때 나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다. 그것은 어김없이 정통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의 술버릇은 나와 결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깨우친 것이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두달 여유를 주었지. 그런데 두달 뒤에 그친구 아파트에 가보았더니 한줄도 안써놓은 거요. 그래서 출두로여관으로 끌어냈잖아? 미스 안도 거기 한번 왔었지?』

『네』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때쯤이 아마 여관에 묵은지도 한달이 넘었을때일 거요. 어디 여행이라도 시키면 기분 전환이 될까

싶어 부산으로 온양으로를 아다녔지. 그래도 해놓은 것이라고는 낙서 뿐인 거야. 서울로 돌아와서는 역시 집에 틀어가 쓰는 편이 좋겠다고 해서 돌려 보냈지. 그런데 며칠 뒤에는어디론가 없어져 버린거요. 집에서도 찾고, 나도 찾고, 영화사는 영화사대로 난리고… 참 더러운 계절이었지. 그런지 한 열흘만에나 타나서 이 친구 한다는 소리가 한 달만 더 여유를달라나? 그래도 어카겠소. 또여유를 주었지. 그랬더니 한달이 지나서는 또 뭐 구워먹은 소식인거라. 한 마디로 마저도 안 써지는거요. 알고보니까 그즈음 한 아무개를 찾는 사람이 나뿐이아닌 겁니다. 다른영화사도 한군데 또 있고, 어떤 출판사에서도 찾습디다. 전작(全作) 계약을 했다는 데 시나리오 쓴다고 없어졌다니 말이나 되느냐고 말요. 나원참, 하나도 쓰진 않고 한 일년 계약만 하고 살거진』

나는 U감독의 말꼬리를 잘라 괴롭게 끼어 들었다.

『이젠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유쾌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럽시다. 작가란 한동안 안써지는 때도 있고 한거지 뭐. 작사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우린 이해할 수 있는일 아뇨』

U감독이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스태프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시작합시다』

스태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U감독이 나를 돌아보았다.

『어카겠소? 그 친구가 여기로 올 일은 없고…』

『가야죠』

『아참, 윤나미가 좀 있으면 올텐데 만나고 가겠어요?』

『아, 출연하나요?』

『아니, 이 작품에는 역이 없어요。그 친구것이 돼어야 했는데 윤나미도 멀는 경우지. 그냥 구경하러 오겠다는 거였소』

나는 좀 서글퍼져서 U감독의 시선을 피했다. U감독이 다시 말했다.

『기다릴래요?』

『아니, 가겠어요』 라고나는 그를 외면한채 말했다. 마침 서울행 열차가 들어올 시간이었다. 어디쯤, 열차가 보이는지 기(旗)를 든 역원이 플랫폼으로 나서고있었다. U감독을 돌아보고 나는 인사를 보냈다. 그가 그런나에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혹시 그 친구 만나면 말요 내가 얼굴이나 좀 보잔다고 전해 주십시오』

나는 예예하게 웃어 보이며 그를 등졌다. 간이역의비좁은 대합실에서 티킷 한장을 손에 넣자 열차가 플랫폼(乘降)을 울리며 플랫폼으로 들어와왔다.

생명의 말씀
CITY-TV: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30~9AM
MTV: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30~1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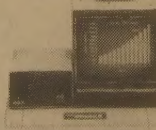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759-8512
최 명 호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275-0702 오 영 림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30AM~새벽2시까지
토 일: 2:00PM~2: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 선 남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533-7966 김 영 철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598-045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참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가의 다가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416) 222-9480

월드컵 女子배구 오늘 東京서개막

한국、美와 첫對戰

8일 日本、10일 中共、11일 蘇와

강호8팀出戰 풀리그制

최대 難敵은 中共、쿠바도 다크호스

제3회 월드컵 여자배구대회가 6일 日本 東京 요요기국립경기장서 개막식을 갖고 7일부터 경기에 들어간다. 오는 16일까지 東京·北海道·오오사까등지를 순회하며 경기를 벌이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 개최국日本, 蘇聯, 中共, 美國, 쿠바, 브라질, 불가리아등 세계의 배구강호 8개국팀이 출전, 풀리그로 대회패권을 가리게 된다. 1회(우루과이) 및 2회(日本)대회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던 한국대표팀은 지난 2일 현지에 도착, 마지막 전력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입상 전망은 다소 어두운 편이다.

日·蘇전력 다소둔화…브라질 호적수로

한국은 평균신장 173.8cm로 최단신인데다 주장 邊京子, 최장신 權貞淑(183cm), 金花福, 郭宣沃등 노장급 4명이 부상중이며 얼마전 새로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신인급들은 국제대회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한 월드컵대회는 2회까지 예선리그후 결선을 펼쳤으나 이번부터 풀리그로 대전방식을 바꾸었다. 西歐선수들에 비해 체력이 뒤지는 한국으로서는 이번 풀리그 대전이 훨씬 불리하다.

금년도 대회는 中共·美國·蘇聯·日本등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나머지 4개팀이 하위그룹을 이룰것이라는게 국내외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특히 최근들어 전력이 급성장한 中共이 최강이라는 평.

콤비플레이위주의 東洋배구에다 西歐의 힘을 겸비한 中共은 세계최대 거포 郞平, 周曉蘭등 뛰어난 스타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선수들도 수준이 고르며 평균신장도 178.7cm여서 이번 대회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이다. 美國은 세계 3대 거포중의 하나라는 흑인 하이만(195cm)의 강타가 무서우며 평균신장 181cm로 최장신팀이다. 종전까지 가끔 눈에띄던 엉성한 면도 많이 보완돼 저력의 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때 세계여자배구 정상고지를 함께 나눠었던 蘇聯과 日本은 지난날에 비해 다소 전력이 둔화된듯하지만 그 전통은 결코 무시할수가 없다.

이들 4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을 한국이 무난히 잡을수 있느냐하면 그렇지도못하다. 지난대회 준우승팀 쿠바는 184cm의 와루에리에스를 앞세워 한국을 괴롭힐것이며 브라질역시 최근들어 전력이 강화돼 한국과는 대등한경기를 펼칠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는 아직 전력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져있지않지만 東歐권 배구가 전통적으로강했다는 점을 감안할때 한국에게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7일 하오4시 美國과 1차전을 갖는 한국은 8일 日本, 10일 中共, 11일 蘇聯과 각각 대전케돼 이번대회 상위팀들과 벽두부터 맞부딪치게된셈이다.

한국대표팀 李昌浩감독은 美國과의 첫대전결과가 나머지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보고 1차전에 최대신경을 쓰고있다고 말했다.

文化放送은 이번 월드컵배구대회 1차전(7일)을 하오6시30분에 텔레비전으로 녹화중계할 예정이며 8일 日本, 15일 불가리아, 16일 쿠바와의 대전은 각각 생방송할 계획이다.

◇한국팀 대진일정
▲7일=對美國(하오4시) ▲8일=對日本(〃5시반) ▲10일=對中共(〃6시) ▲11일=對蘇聯(〃6시반) ▲13일=對브라질(〃6시) ▲15일=對불가리아(〃1시) ▲16일=對쿠바(12시)

챔피언 金煥珍華燭 13일 종합전시장서

프로복싱 WBA 주니어라이트급 챔피언 金煥珍(26·사진ⓐ)은 13일 하오 1시 서울강남구 영동 종합전시장서 兪侑廷양(25·ⓑ)과 결혼식을 올린다.

쿠웨이트 先頭에 월드컵 蹴球예선

【리야드4日AP=聯合】쿠웨이트는 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82년 스페인 월드컵축구 아시아·大洋洲지역예선에서 사우디를 1-0으로 꺾었다.

韓國 덴마크完破

2連勝、中共과 예선마지막경기

8개국 親善테니스

페더레이션컵 테니스대회에 참가한 16개국중 8개국이 출전한 시즈오까(靜岡)의 친선테니스대회에서 韓國여자선수단은 예선A조 2차전에서 덴마크를 3-0으로 완파, 2연승을 기록했다고 선수단이 4일 협회에 알려왔다. 한국팀은 5일 中共과 예선최종전을 갖는다. A·B조에서 수위팀이 결정전에 진출, 우승을 가리게된다.

流星의 賦 <22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秋風何處至 ㉘

양천회의 상소를 비롯한 갖가지의 상소, 거기다 추국을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온 자백등으로 하여 조정의 요직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추궁을 면할 도리는 없었다.

우의정 정언신은 사태가 위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소를 올려 스스로 위관(委官)을 사퇴하였는데 그 소에 이르길

『신은 역적과 관직이 다르고 나이도 젊지 않으며 또서울과 지방에 멀리 떨어져 살고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한 사실이 없음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옵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 정언신이 정여립에게 보낸 서찰이 임금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렇게된 까닭은 정언신이 선전관 이용준에게, 정여립의 가택을 수색할때에 자기 형제가 보낸 서찰은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단단히 부탁하였는데 이용준의 부주의로 몇통의 편지가 그냥 남아있게 된 때문이다.

이용준은 무인(武人)이라서 학식이 밝지를 못했다. 그래서 「정언신」 또는 「정언지」라고 씌어있는 편지만 없애고, 「종로신(宗老信)」 또는 족로신(族老信)이라고 쓴 편지는 버리질 않았다. 정언신은 종친인 정여립에게 편지를 쓸때 관례에 따라 성명을 쓰지않고, 종친의 늙은 신(信)이란 뜻으로 「종로신」이라고 썼던 것이다. 이용준은 그것이 정언신의 것인줄 몰라보고 조정에 그냥 제출하였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그편지 가운데 은근히 임금을 비꼬고 세상을 개탄하는 말이 섞여있었던 터라 임금은 분노했다.

『적변이 일어난 날부터 우상 정언신이 하는짓이 매우 마땅하지 않았으나 참고 잠간에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추국이 너무 소란한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터이며 양천회의 소로서 대강의 짐작도 했었다. 그런데 우상으로서 지금에야 소를 올려 변명한다는 것은 무슨 짓인가. 심히 온당하질 않다. 역적과 서찰을 통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내게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봉한 편지를 승정원에 내려보내며

『대체 이것은 모두 어떤 사람의 서찰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속엔 시원치않은 세상일을 말하자니 지리하고도 가소롭다고 했는데 이러고도 역적과 친하지도 않고, 서찰을 통한 일이 없다고하는 거짓말을 꾸며댄단 말인가. 몸이 대신으로 있으면서 임금을 속이려고 하니 분하기 한량이 없구나. 내가 이편지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로 인해 번거로운 풍파가 일까봐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 20년동안이나 대신으로서 대접해 온 나의 뜻이 이로써 물거품처럼 되었으니 마음이 아프다. 정원은 이글을 보고서 한벌을 등사해놓고 도로 돌려보내란』고 했다.

이어 11월7일, 양사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조참판 정언지와 김우옹, 백유양등은 역적과 친족으로 또는 친구로, 혹은 인척관계로 모두 서로 두터운 교분으로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한 사실이 있을뿐 아니라, 천일(天日)이 내려다 보는 아래서 역적과 통신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로 임금을 속임으로써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니 원컨대 즉시 놈들을 몰아내소서』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나의 이력서

윤치영

58년 3대국회의원생활을 끝으로 난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 분노와 좌절, 苦悶속에 汚染政界에서 발을 뺀 것이다. 그보다 1년전 여름엔 내가 사실상 1人1黨으로 끌고온 大韓民黨의 간판을 내렸다. 「가짜 李康石사건」이 세상을 시끄럽게하고 自由黨이 깡패를시켜 野黨이 서울奬忠壇에서 가진 연설회를 폭력으로 방해하던 무렵이었다.

50년대의 긴 自由黨독재의 터널에서 나는 李承晩대통령에게 정확한 民情과 奸臣輩들의 농간을 진언하려했으나 뜻대로 되지않았다.

사악한 權勢의 무리들은 나를 철저히 경계하고 李대통령에의 접근을 막았다. 그 긴세월 나는 李대통령을 단 두번 만났을 뿐이다. 한번은 내가 회장으로 있던 육상경기연맹에서 선수의 해외파견문제를 상의하기위해 景武臺에서 잠깐 만났고 한번은 밖에서 만났다.

3代국회末期이었나, 밖에서 만났을 때 나는 李대통령에게 『아첨배들의 城에서 해방되십시오. 선생님, 선생님은 고립돼 있습니다』라며 나라걱정을 했다. 그랬더니 李대통령은 『호랑이가 철창에 갇혔어. 자네말이 옳아. 그만큼 자네가 알아주니 고맙네…』하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다시 『개인의 얘기는 남에 대한 욕이 될 것 같아 말씀 못드리겠다』며 세상의 얘기를 했더니 李대통령은 『자네한테대한 모략、중상이 많으니 조심하란』고 일렀다. 그러고는 『자네를 重用하고 싶어도 자네자신을 위해 쓰지않으니 무슨 얘기인지 잘 유념하란』고 했다. 그분도 역시 깊은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잘 알겠습니다。국회나 野人으로 있는게 더 마음편합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대통령의 편안을 빌며 헤어졌다.

鐵窓속의 호랑이

李大統領 아첨帳幕에갇혀 孤立상태

3代議員끝으로 汚染政界서 물러나

◇우리의 建國및 戰勝·戰災복구에 많은지원을해준 유엔에 나는 몇차례 총회대표로 참석, 활동했다. 사진은 58년 13차총회에 참석차 出國하는 대표단。 前列左로부터 筆者, 曺正煥박사, 羅容均의원。

李대통령은 나에대한 모함을 무릅쓰고 50년대기간중 몇차례 유엔대표로 보내주었다. 6·25동란중 駐佛공사 부임길에 제5차유엔총회에 지원차 간 것까지 합하면 나는 4차례 유엔에 간 셈이다. 내가 정식대표단으로 유엔에 간것은 54년의 제9차총회에서 58년의 제13차총회까지 3차례였다. 당시 무슨 大會인 때문에 유엔에 간것이 아니고 보면 李대통령이 애정을 살려 내보내주었던 것 같다.

유엔총회에 갈 적마다 나는 유엔총회장에서의 외교활동도 중요하지만 對美외교에 더 신경을 썼다. 자유진영의 리더이자 절대적 사령탑인 對美외교와 미국의 각계인사들과의 접촉이 오히려 對韓지원에 집중효과를 낳는다는 판단에서였다.

미국 국무성은 역시 벽이 높았다. 역시 強大國답게 그들은 세계위에 君臨하는 자세였다. 나는 워싱턴에서 국무성을 적지않이 드나들었지만 제대로 만나 얘기를 해본 인물은 국무성고문과 極東局長(차관보) 정도였다.

미국의 의회는 국무성보다 한결 자유로왔다. 내가 접촉을 많이한 인물은 上院외교위원회의 놀랜드, 와일리, 모리스, 매카디上院議員등이다. 특히 反共매카디 旋風으로 유명한 매카디의원과는 친밀히 지냈다. 나는 그의 집에가 이틀간 묵으면서 국제정세와 외교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매카디의 부인도 한국문제에 관심이 깊었다. 매카디의원은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고는 그뒤 病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른바 매카디旋風이 무고한 사람을 공산주의로 몰아 정치적으로 惡用됐다는 말도있으나 그의 反共자세만은 우리가 탄복할 정도였다.

나는 또 미국의 국제정치에 입김이 강한 학자들을 만나 한국문제에 대한 측면지원을 수없이 호소했다. 그들중엔 조지·워싱턴大의 마빈총장, 카네기평화재단이사장인 스코토박사, 조지타운大대학원장인 월즈박사, 프린스턴大대학원장 틸린즈박사등 학창시절 인연이있던 인물들도있다. 한번은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귀로에 母校인 프린스턴大에 들러 틸린즈학장과 하룻밤을 같이지내며 옛날을 회고하며 밤깊은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나오면 무척 시끄러울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한국문제가 진지하고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기대에 불과하다. 소위 유엔활동이란 한국문제가 상정되는 정치위원회에서 한때 의사표시를 하는 정도에 그친다. 유엔본대에서 각국을 상대로 우리가 「외교공작」을 펴 성과를 거두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지지하는 강대국의 입김에의해 좌우되기 일수다. 특히 50년대까지 유엔은 미국의 독무대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의 등을 자꾸만 밀어대야했다. 내가 같이 외교활동을한 인물로는 戰時의 駐美대사였던 張勉, 梁裕燦, 林炳稷, 任永信, 曺正煥등이있다. 50년대 유엔활동은 크게 나누어 6·25동란때는 對韓軍·經지원을 집중적으로 호소했고 休戰協정후엔 中共軍철수와 휴전협정과기록, 그후엔 한국의 통일방안과 유엔가입문제등을 제기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유엔에 갔던 58년제13차총회때는 安保理에서 한국、越南、기니의 유엔가입문제가 토의됐는데 이때도 미국、영국、中華民國등 우방들이 한국의 유엔가입을 재권고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부결이 되었다.

한국의 유엔加入은 49년 가입신청서를 낸 이후 지금까지 33년이 됐건만 아무런 진전도 없었으니 分斷國의 설움을 새삼 절감케해줄 뿐이다.

韓·스위스 共同우승

한국여자탁구대표팀은 6일 시즈오까의 프렌드쉽테니스대회 결승전에서 스위스와 대전케 되었으나 이 지방의 심한 비로 경기를 취소、공동우승을 차지했다고 협회에 알려왔다.

39歲의 몬존 링復歸 검토

건강진단 結果後

【부에노스아이레스4日AP=聯合】前세계프로복싱 미들급챔피언인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몬존(39)은 美國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심있는 제의』를 받고 링에복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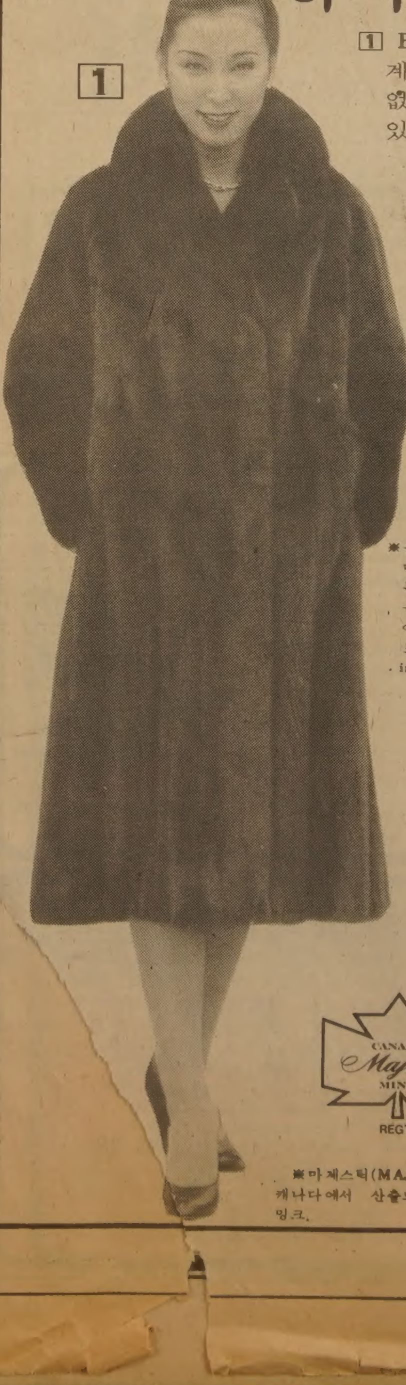
鐵人이라는 별명으로 12년이상 미들급챔피언자리를 지켰던 몬존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돈이나 인기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링에의 복귀여부는 건강진단의결과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대표6명選拔

배드민턴協

대한배드민턴협회는 4일 끝난 선발전성적을 토대로 6명의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했다. 새 대표팀은 黃善愛(한국체대) 金鍊子(성지여고)외에 선발전 상위입상자인 柳尙希(성지여고) 金允淑·宋恩珠(이상대구제일여상) 朴賢淑(광주동신여고)등으로 꾸려졌다.

혹시 서양인의 체형(体型)에맞춰 만든 모피제품을 구하려고 하시지는 않는지요?



1 BLACK GLAMA MINK LONG COAT : 검은 밍크로서는 세계 제일로 손꼽히는 밍크코트. 일반 시중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코트. 스킨 한장한장마다 Black Glama라는 마크가 적혀 있음.

2 MAJESTIC DARK MINK JACKET : Black Glama와 쌍벽을 이루는 밍크. 제품 안쪽에 반드시 CANADA MAJESTIC MINK 라는 상표가 붙음. 이외에 Majestic Pastel Mink(열은 밤색) Majestic Demi Buff(짙은 밤색) Majestic Sapphire Mink(잿빛) 등이 있음.

3 DEMI BUFF MINK STOLE : 역시 Majestic밍크로 스토울중에서는 최고급품.

4 밍크목도리(목도리 외에도 코트깃에 다는 여우 종류의 칼라가 있읍니다)

5 CANADIAN RED FOX JACKET : 여우 종류의 제품은 칼라 맷칭이 가장 중요. 양산(量産)하는 곳의 제품은 칼라매칭이 눈에 띄게 떨어짐.

캐나다, 특히 토론토와 몬트리얼에는 수많은 모피공장, 스토어가 있읍니다.

거의가 서양인의 몸에 맞게 디자인한 패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한국여성에게 맞을수는 없읍니다. 제품 100% 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당 공장은 오로지 동양여성 만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한벌의 밍크코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급 밍크스킨+COLLAR MATCHING+CUTTING+SEWING입니다.
30년 경험의 기술자들이 위의 것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6 BLUE FOX JACKET : 역시 Red Fox와 마찬가지로 제조상 어려운 것은 칼라맷칭. 특히 검은 빛을 띄우는 부분과 흰빛을 띄우는 부분의 맷칭이 뛰어난 기술을 요함.

※블랙 그라마(Black Glama)미국 오대호 주변의 밍크양식업자가 생산하는 Dark Mink중에서 최고급의 것을 Great Lakes Mink Association에 제출하여 Black Glama라는 상표명으로 판매하고 있음. Dark Mink로서는 세계 제일로 군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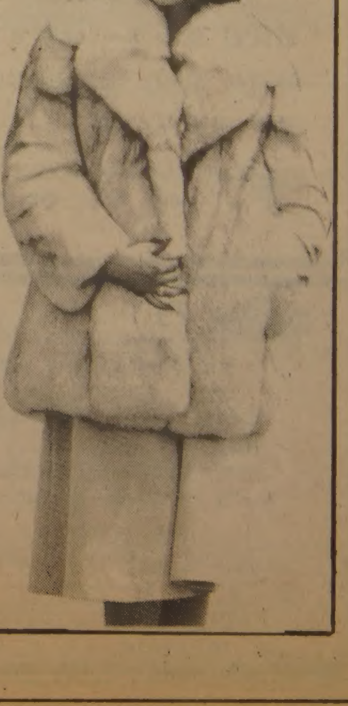
☆오더 메이드 전문
록키모피
315 ADELAIDE ST. W. 2nd Floor, TORONTO
TEL : 366-4497
월~금 : AM10 : 00~PM5 : 00
토 : AM10 : 00~PM2 : 00

2

3

4

5

6


CANADA Majestic MINK REG'D*

※마제스틱(MAJESTIC) = 캐나다에서 산출되는 최고급 밍크.